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직업카드를 활용한 진로탐색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제주지역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윤 영 식

2014년 8월

<국문초록>

직업카드를 활용한 진로탐색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제주지역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윤 영 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사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 하였다.

연구문제 1.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위와 같이 설정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J시의 J중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들로서 진로탐색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과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15명씩 무선 배정하였으며, 2015년 3월 5일부터 2015년 4월 10일까지 주 2회(목, 금요일) 10회기의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의 측정도구는 자아정체감의 사전, 사후검사는 박아청(2003)의 ‘자아정체감

검사'를(이 척도는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주도성의 5개 하위영역에서 각 10 문제씩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다), 진로결정효능감의 사전, 사후검사의 측정 도구는 Tayloy와 Betz (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의 단축형 (CDMSES-SF)을 조아미(2001)가 번안한 것(진로결정효능감 척도는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의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은 것이다.)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의 사전·사후 검사에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T*-검정을 실시하여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효능감 향상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자료처리를 위해서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는 통제집단에 비하여 자아정체감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둘째,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는 통제집단에 비하여 진로결정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효능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5
3. 용어의 정의	6
4. 연구의 제한점	7
II. 이론적 배경	8
1. 진로탐색을 위한 집단상담	8
2. 자아정체감 이론	18
3. 진로결정효능감 이론	22
4.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효능감과의 관계	28
III. 연구방법	33
1. 연구대상	33
2.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35
3. 연구설계	37
4. 연구도구	38
5. 자료처리	40
IV. 연구결과 및 해석	41
1. 자아정체감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41
2. 진로결정효능감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42
3.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43
4.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46

V. 요약 및 결론	50
참고문헌	58
Abstract	65
부록목차	68

표 목 차

표 III-1. 실험집단·통제집단의 자아정체감 사전검사 평균(표준편차)	34
표 III-2. 실험집단·통제집단의 진로결정효능감 사전검사 평균(표준편차)	34
표 III-3.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36
표 III-4. 연구 설계	37
표 III-5. 자아정체감 도구의 하위요인과 요인별 신뢰도	39
표 III-6. 진로결정효능감 도구의 하위요인과 요인별 신뢰도	40
표 IV-1. 자아정체감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41
표 IV-2. 진로결정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42
표 IV-3. 실험집단·통제집단의 자아정체감 사전검사 평균(표준편차)	43
표 IV-4. 실험집단·통제집단의 자아정체감 사후검사 평균(표준편차)	44
표 IV-5. 통제집단의 자아정체감 사전·사후검사 평균(표준편차)	45
표 IV-6. 실험집단의 자아정체감 사전·사후검사 평균(표준편차)	45
표 IV-7. 실험집단·통제집단의 진로결정효능감 사전검사 평균(표준편차)	46
표 IV-8. 실험집단·통제집단의 진로결정효능감 사후검사 평균(표준편차)	47
표 IV-9. 통제집단의 진로결정효능감 사전·사후검사 평균(표준편차)	48
표 IV-10. 통제집단의 진로결정효능감 사전·사후검사 평균(표준편차)	4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한 인간이 의존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독립된 사회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진로탐색기에 있는 중학생은 의사결정에 앞서 많은 불안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황혜자, 김태훈, 2005). 그러나 현재 중학생의 진로교육은 교육과정상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되지 못한 채 부모의 의견이나 성적, 대학진학 유무 등에 따라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임경희, 2006).

우리나라의 경우 일차적인 진로 결정의 문제는 중학교시기에 맞이하게 되며, 상급학교의 진학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실태를 분석한 연구(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2003)에 의하면 고등학교 진학의 기준은 학교 성적이라고 밝혔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특수목적고나 일반계 고등학교에, 낮은 학생은 전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특성들을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심응철, 1994).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은 교사나 전문기관의 전문가들과는 상의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지도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직업세계가 다양화·전문화 되고 그 생성과 소멸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지식·정보 사회의 생산적인 성원으로서 행복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조기에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경애, 2004).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의 세계, 직업의 가치관,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탐색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를 맞게 되는 청소년들은 정체감의 혼미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갈등을 겪으며, 일부 청소년은 자신과 맞지 않는 진로를 선택하게 되거나 능력 이상의 것을 스스로 요구하면서 좌절하거나 탈선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

기를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감을 정립해 나가며 합리적으로 직업을 계획하고, 선택한 직업에서 적응하게 하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로 교육이 매우 필요하며 중요하다. 이에 개인이 진로지도를 조력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진로 집단 상담이다(Barker, 1981 ;Ducat, 1980 ;Johnson, 1972 ;Surague와 Strong, 1970).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정의적 성숙과 진로발달을 도와주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으로 진로계획, 직업선택, 진로문제의 해결과 적응을 위해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집단원들에게 한번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집단원들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직업을 계획·결정하며, 직업적 성취를 위한 자질을 개발하기 위해 공동으로 생각하며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 효율적이다(고향자, 1992 ;김판완, 1997).

이처럼 진로교육은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면서 앞으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하게 되고 진로 결정과 계획의 과정은 또다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청소년 시기는 자아정체감의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하는 시기인데, 학생들의 현실은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Erikson(1969)은 청소년기의 특징으로는 자아에 대한 의문을 가지며, 이상을 추구하는 시기라 하였다. 또한 Erikson은 청소년기를 정체감 대 역할혼미라고 하고, 이 시기의 발달과업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으므로 성공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정체감 혼미가 일어나 오히려 부정적인 정체감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럴 경우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에 가담하거나, 정체감 혼미에 머물러 방향감을 상실하고 약물탐닉, 습관적 음주 등과 같은 정신 병리적 징후를 보이다가 심한 경우는 정신분열증이나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바른 정체감 형성은 청소년기의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다. 진로결정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로는 홍 설(2006)은 「진로 집단 상담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진로성숙, 진로의사결정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중학생의 진로태도와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정희영(2007)은 「진

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서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며, 주변사람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줄이고 자아상황에 대한 정보의 실제적이고 논리적이며 신중한 평가를 하는 것이 진로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김경애(2004)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중학생의 진로의식과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으며, 진로탐색에 흥미를 주어 앞으로의 직업선택과 진로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오미경(2006)은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진로성숙도를 비교한 결과 진로지향성, 직업적 성편견, 자율성, 자긍심 영역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기는 극심한 변화의 와중에서 장차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본격적인 청소년기에 진입한 중학생들로 하여금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는 학교현장에서 다른 무엇보다 교육의 한 핵심적 요소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면에서 중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하고 유망한 산업에 대한 진로캠프를 운영해 중·고등학생들에게 미래 직업관을 넓혀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주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돼, 이와 관련된 진로탐색 및 말 산업, 해양 산업, 청정에너지 산업, 물 산업, 친환경 농업과 같이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산업 및 유망 산업에 대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되고 있는데 이는 제주지역사회와 학생들의 결합을 통해 학생들의 직업관을 넓혀주는 효과와 지역의 독특한 산업에 대한 이해도 추가돼 학생들의 미래직업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제주도교육청, 2013).

이처럼 중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진로 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이해하고,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올바른 진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일이 매우 필요하기에, 다양한 직업을 접해 볼 기회가 없고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훌륭한 직업 체험관을 갖추어서 학생들에게 그 직업에 대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인 제주

에서는, 본 프로그램처럼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미래 직업관에 대해서는 직업카드를 활용하여 많은 직업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적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이렇게 그 지역에 맞도록 수정·보완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학생들이 교실에서 담임교사나 진로담당교사를 통하여 실시하는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여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또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 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이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여 스스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여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아울러 진로탐색 집단상담이 학교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사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본 연구 문제의 검증을 위하여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줄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가. 진로집단상담

진로상담이란 일의 세계에서 적절히 융화된 자신의 역할상과 자아상을 발전시키고 수용하여 자신을 현실에 검토해 보고 검토한 자체를 자신에게 만족하고 사회에 이익이 되는 현실로 전환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집단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진로결정을 도와주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나.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이라는 개념을 정식분석학자 Erikson이 1950년에 정체감이라는 개념을 자아심리학의 기본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자아정체감이란 자신의 독특성에 대해 비교적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으로써 행동, 사고 및 감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일관성이다.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게 하고, 현실의 의미와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자아구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자신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본질적으로 불변하는 실체로 인식하는 개인의 느낌, 자아정체감은 자신에 관해서 통합된 관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 진로결정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이란 개인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진로결정 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기의 소질을 고려한 적절한 진로를 탐색하여 결정하는데 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라. 직업카드

직업카드 분류는 테일러에 의해서 최초로 제안 되었다. 직업카드의 앞면에는 직업명, 직업카드번호, 한국 고용 직업분류, 홀랜드 흥미유형이 표시 되어있고 뒷면에는 직업개요, 학력/전공, 업무수행능력, 지식, 성격 등이 기록되어있다. 이 직업카드를 가지고 직업카드 분류법을 이용하여 직업선택에 대한 흥미와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질적 평가 방법이 있으며 직업카드를 분류할 때는 좋아함, 싫어함, 미결정 등으로 구분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도 J시에 소재하는 J중학교 학생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내용과 더불어 연구자의 프로그램 진행 경험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의 효과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되는 지에 관한 추후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탐색을 위한 집단상담

학교에서 효과적인 진로선택을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진로 집단상담이다. 진로지도는 개인에 의한 경우보다 집단 활동을 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개 학생들이 일정 시기에 직업과 관련된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진로선택은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이고, 진로상담은 성숙한 진로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내담자가 이미 결정한 직업적인 선택과 계획을 확인하며 개인의 직업목표를 명백히 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내담자가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며 의사결정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각종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진로탐색 프로그램 내의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을 투입해야 한다.

진로 집단상담은 주로 목적이 내담자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며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통한 자기 이해와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집단구성원들로부터 발생하는 동기부여,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학습할 기회제공 그리고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진로상담에서 오는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집단상담은 진로에 대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게 하며, 집단원간에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개인적 발달과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올바른 자기 이해와 다양한 직업 정보를 접하게 되며,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술을 습득하여 진로의식을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가. 진로탐색 집단상담 의의

진로상담의 초창기에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여러 가지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부합되는 직종을 발견하여 개인과 직업을 연결하는 초보단계에 머물렀다. 그러나 진로선택 및 진로발달에 관한 이론이 체계화되고 진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밝혀짐에 따라 하나의 발달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다(이현림, 2007).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가운데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을 돕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진로에 대한 인식, 탐색, 준비, 선택에 관련된 내용이며, 청소년들에게 생애 설계와 진로의 방향을 결정 짓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구체적이고 이상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한 현실이나, 진로발달 프로그램은 교육 훈련 및 상담의 핵심 분야이며, 진로교육과 상담의 가장 중핵적인 활동내용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직업정보를 습득하여 진로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

진로상담 이론가 중 발달적 관점을 강조한 Super(1957)는 진로발달 단계 가운데 특히 탐색기의 확립기에 주안점을 두었다. 탐색기의 발달과업으로 욕구, 흥미, 능력, 가치, 취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진로를 선택하고 그것을 상상, 토의, 일, 기타 경험을 동해서 시행해 보는 것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Holland(1981)는 진로중재에 대한 연구에서 그 효과를 직업정보의 공개, 직업포부의 인지적 재연, 자아, 직업 및 자아와 직업의 관계에 대한 정보 조직의 인지적 구조 획득, 상담자나 참여자로부터의 강화 또는 사회적지지 등을 들고 있다. 최근에 청소년들의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위한 의사결정능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진로집단지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 중에 청소년을 위한 진로집단상담은 다음의 네 국면, 즉 자신의 존재와 존재의 의미에 대한 자각, 자아정체감과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 개인의 능력과 포부 수준에 적합한 직무활동 선정, 구체적인 직업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장, 단기적인 계획 수립과 실천방안 강구를 프로그램에 포함시킨다고 한다(이현림·김순미·천미숙, 2007).

이러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집단원에게 한 번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적 성취를 위한 자질을

개발하기 위해 집단원들과 진로에 관한 공통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상담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나. 청소년 집단상담의 의미와 과정

집단 상담을 정상범위 내에 속하는 개인들이 하나의 동료집단 내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된 한 사람의 상담자와 함께, 그들의 태도를 수정함으로보다 능률적으로 발달적 문제를 취급할 수 있게 되도록 상호 간의 문제들과 감정을 탐구, 조사하는 하나의 역동적 대인간의 고정이다(Corey, 1995). 이러한 집단상담의 정의에서 비추어 청소년 집단상담의 의미를 정의하면 한 명의 상담자와 여러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생활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나 사건 들 그들의 관심사에 대하여 각자의 느낌, 반응 행동, 생각들을 대화로 서로 교환하는 가운데 허용적, 현실적, 감정 정화적, 상호 신뢰적, 수용적, 지원적인 집단의 응집력과 치료적 분위기를 통해 상호 이해를 촉진함으로써 긍정적 행동, 태도의 변화를 모색하는 목적을 가진 집단 활동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집단상담은 개인상담에서 가질 수 없는 장점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집단상담의 장점을 일곱 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 집단상담은 효율적이다. 즉, 상담자가 많은 내담자들에게 더 많은 상담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집단상담은 대인관계 문제로 다루는데 사회적 대인관계 상황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내담자가 새로운 행동을 실천해 볼 기회를 갖는다. 넷째, 내담자 자신들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진 문제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게 한다. 다섯째, 내담자 상호 간에 지지 체제를 형성한다. 여섯째, 내담자는 대인관계상의 의사소통 기술을 배운다. 일곱째, 내담자는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줄 기회도 갖게 된다(이현림, 2000).

이러한 집단상담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적합하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은 부모나 상담자와 같은 사람로부터 이질감을 느끼는 반면에 동료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집단상담에서 다른 동료 참여자들의 피드백은 청소년들이 자신을 이해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Rogers(1970)는 집단상담의 과정을 15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모색 단계에서는 당황, 어색한 침묵, 예의바른 표면적인 내왕, 사교적인 대화, 좌절, 일관성의 결여 등이 나타나고 개인적인 표현 또는 탐구에 대한 저항단계에서는 자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표명하는데 대한 그 자신의 두려움과 집단에 대한 신뢰감의 결여를 드러낸다. 과거 감정의 술회 단계에서는 감정의 표명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나 시간과 공간적으로 그룹 밖의 것, 즉 ‘그 때, 거기에서’ 일어난 것을 말한다. 부정적 감정의 표명 단계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표명하는데 최초로 나타나는 집단원이나 지도자에 대해 부정적 감정으로 표명되기 쉽다.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일의 표명과 탐구 단계에서는 자기를 의미 깊은 형태로 나타나고 부정적 감정이 흡수되는 경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알리는 모험을 시작한다. 집단 안에서의 즉각적인 대인 감정의 표명 단계에서는 집단원이 다른 집단원에게 그 때 경험한 감정을 표명한다. 집단안의 치유력의 발전 단계에서는 집단원들이 고통과 고민을 가진 집단원에게 원초적, 촉진적, 치료적 태도를 나타내는 자발적 움직임이 생긴다. 자기수용과 변화의 시작 단계에서는 집단원들은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며 변화에 좀 더 개방적이 된다. 가면의 박탈 단계에서 집단은 집단원 개개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 감정을 속이지 않을 것, 일상적 사교의 가면을 벗을 것을 요구한다. 피드백 단계에서는 자연스러운 대화 가운데 자기가 타인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며, 자기를 생각해서 말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므로 건설적 작용을 한다,

맞닥뜨림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 집단 장면 밖에서의 원조적 관계의 출현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을 표명하려고 애쓰거나 개인적 문제로 힘들어하거나 자기의 결함을 발견하고 상처받거나 하는 집단원을 집단장면 밖에서도 도와주게 된다. 또한, 기본적인 만남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긍정적 감정과 친밀도의 표명 단계에서는 감정의 표현과 수용이 깊은 친밀감과 긍정적 감정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따뜻함, 그룹의식, 신뢰 등의 감정이 형성되어 간다. 집단 안에서의 행동의 변화 단계에서는 말하는 어조가 달라지며, 기교가 적어지고 자발적이 되며 감정이 깊어지며 집단원간의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 진로상담과 집단 진로상담의 효과에서 집단 진로상담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Rubimton, 1980; Sherry & Starey, 1984). 청소년들은 동료집단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선호하므로 집단의 역동성이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점에서 진로상담은 개인상담보다 집단상담의 형태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진로탐색 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진로교육의 가장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즉, 진로에 대한 인식, 탐색, 준비, 선택에 필요한 교육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이상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진로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첫째, 자아개념의 구체화 둘째,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셋째, 진로계획에 대한 책임감 넷째, 의사결정 능력 다섯째, 협동적인 사회적 행동 여섯째, 일에 대한 태도 등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김충기, 1986).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는 일은 개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결정의 하나이다.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활양식, 가치관, 태도 등이 정해지기 때문이다(이재창, 1994). 따라서 학교교육에서도 학생의 인간적 성숙을 위하여 진로 결정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그 동안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된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Chapman(1976)의 진로탐색프로그램, 고교생을 위한 Brown(1986)의 LPW(life-planning workshop) 등이 있으나 미국 실정에 맞는 것들 이었다(김수자, 1991).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 이후 황웅연·이정근(1980), 김충기(1987)에 의해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변정순, 1990).

이 프로그램은 총 1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5단계의 탐색과정은 활동 내용의 특성에 따라 크게 두 개의 과정으로 묶어 볼 수 있다. 1단계에서 8단계까지의 제1과정은 마음에 드는 직업을 찾아 그것을 희망직업목록에 계속 첨가해 가는 공통적 활동을 하게 된다. 9단계에서 15단계의 제2과정은 나의 적성에 맞지 않는 희망직업을 삭제함으로써 최적의 직업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때 고려하게 되는

자신의 특성에는 가치관, 지능, 학업성취도, 적성, 성격, 자아개념, 투자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로선택시에 도움을 제공하고, 진로의식을 성숙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Gribons와 Lohnes(1966)는 진로성숙 수준은 자기효능감의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중학교 2학년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았다. Zunler(2002)는 자기효능감을 교육 및 직업적 목표와 연계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자아상, 자기존중감, 자아정체감 등에 대해 다른 이해를 하고 자기효능감과 진로선택과의 관계를 짓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정채기, 1991; 김충기, 1998). 또한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보다 자신의 진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자신의 힘으로 진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진로계획이 보다 명확하다고 보고하였다(강종구, 1986). 아동의 진로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아동의 진로태도 중 계획성, 성향의 요인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가장 영향이 큰 자아개념은 학문적 자아라고 하였으며(윤명숙, 1989), 진로능력은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의미 있는 부적 상관이 나타나 자신의 외모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진로선택 과정에서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흥미나 성격을 이해하고 진로에 관련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은 정적 상관이 있으므로 긍정적 자기효능감을 길러줄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이경숙, 1983). 또, 초등학생 401명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사회적 자아, 인성적 자아,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은 사람은 자아정체감도 높아짐을 보고하였다(이경애, 2001). 따라서 이러한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효능감의 높은 정적 상관을 고려할 때 보다 적절한 진로상담을 통하여 중학생들의 진로결정효능감을 높여줌으로써 합리적인 진로선택 및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김인희, 2001)

라. 직업카드 150

1. 직업 150개 선정

직업카드150의 직업명은 직업세계에 타당한 대표성을 가지는 직업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신중 유망 직업, 그리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의 흥미와 부합되는 직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카드가 많을수록 그리고 새로운 직업이 많을수록 분류에 대한 흥미와 진로 지도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보편 타당한 직업과 현대 사회와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직업들을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직업카드를 선정하기 위해 한국직업전망서, 외국의 O*Net, WorkNet 등을 참조하여 300개의 직업을 선택하였다. 이들의 직업들 중 직업세계의 대표성, 신중 유망 직업, 학생들의 직업 선호도 등을 참조하여 200개의 직업을 선별하였다. 200개의 직업카드를 다시 홀랜드 유형으로 분류하고, 직업교육 및 진로지도 교사 그리고 커리어코치와 협의하고 연구하여 최종 150개 직업들을 선정하였다.

2. 직업카드의 구성

직업카드150은 161개의 직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161개의 직업들은 홀랜드 유형(RIASEC)을 고려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현실형(R), 탐구형(I), 예술형(A), 사회형(S), 진취형(E), 관습형(C)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초기의 직업 수는 150가지였으나, 최근에 신규 직업을 추가하여 전체 직업 수는 161가지이다.

직업카드150의 앞면에는 홀랜드 유형, 유형별 일련번호가 표시되어 있다. 홀랜드 유형별로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였으며, 모두 6가지 색깔로 되어 있다. 현실형은 청색, 탐구형은 분홍색, 예술형은 보라색, 사회형은 초록색, 진취형은 빨간색, 관습형은 파랑색이다. 각 유형에는 행운 카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직업카드 게임 활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직업카드 뒷면에는 직업명, 직업설명(하는 일), 지식, 능력, 흥미, 성격, 전공(관련 학과), 자격(증)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유형별 디자인 색깔은 모두 다르다. 미래전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직업탐색과정에서 단순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된다. 직업카드의 규격은 가로 65mm, 세로 90mm이다.

마. 직업카드150 활용 방법

1. 직업카드 선택

직업카드150은 초등학생, 청소년 그리고 성인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만일 초등학생들이 분류활동을 한다면 각 유형별로 1번에서 10번까지만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직업카드 분류활동을 한다면 각 유형별로 1번에서 20번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분류활동시간이나 집단의 크기에 따라 융통성 있게 카드 수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만일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각 유형별로 모두 사용하여 분류활동을 하면 효율적이다. 이것은 직업카드게임을 할 때에도 같은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각 유형별로 카드 수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대상자들을 홀랜드 유형으로 분류한 다음, 각 해당하는 유형의 직업카드를 활용하여 진로탐색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RIASEC 진로적성검사(마인드프레스, 2010)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2. 직업카드 분류 활동

직업카드150에는 ‘좋아하는 직업’, ‘결정할 수 없는 직업’, ‘싫어하는 직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풋말(범주)카드가 포함되어 있다. 직업카드 분류활동은 참여 학생의 인원수에 따라 크게 개인별, 소집단별, 학급별(중등학교의 경우)의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다.

직업카드 분류활동은 직업카드 분류, 분류 이유 찾기, 선호 유형 찾기, 결과요약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들 과정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는 단계는 아니며 진행자들이 사용 여건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하여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다.

1) 도입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직업카드150을 나누어 주고, 직업카드의 구성내용과 카드분류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해 준다. 직업카드에 표시되어 있는 직업명과 정보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잠시 가진다.

2) 직업카드 분류

직업카드150에 포함되어 있는 풋말(범주)카드(좋아하는 직업, 결정할 수 없는 직업, 싫어하는 직업 이라고 적힌 카드)를 테이블의 위쪽에 위치시키도록 한다. 분류 단계에서는 직업카드를 좋아하는 직업과 싫어하는 직업 그리고 결정할 수 없는 직업(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미결정) 직업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해 본다.

‘좋아하는 직업’으로 분류하는 직업들은 그 직업에 대해 평소 호감이 있거나, 그 직업에 종사하고 싶지는 않지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직업, 추구하고 싶은 직업, 향후 직업으로서 선택할 확률이 높은 직업들이다.

‘싫어하는 직업’으로 분류하는 직업은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업, 종사하고 싶지 않은 직업, 관심이 없는 직업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지시켜야 한다.

풋말(범주)카드 아래로 직업카드를 ‘좋아하는 직업’, ‘결정할 수 없는 직업’, ‘싫어하는 직업’으로 분류한다. 1차 분류가 끝나면, ‘결정할 수 없는 직업’으로 분류된 직업카드들의 정보들을 한 번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만일 다른 곳으로 분류 가능한 것이 있다면 옮긴다. 각 범주에 포함된 카드의 개수를 헤아려 활동지에 기록한다.

	좋아하는 직업	결정할 수 없는 직업	싫어하는 직업
카드 개수	20	125	15

3) 분류 이유 찾기

이 단계는 특정 직업에 대해 막연히 좋다고 생각하던 것에서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료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직업 흥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해 보게 하는 핵심적인 과정이다.

‘좋아하는 직업’으로 분류된 직업카드들을 대상으로 분류한 이유를 생각하여 활동지에 정리한다. 예컨대, 판사, 치과의사-높은 보수, 미술치료사-봉사와 도움 등으로 기록한다. 최대 20개 정도 기록하도록 한다.

직업명	분류한 이유
1. 판사	높은 보수
2. 치과의사	높은 보수
3. 대학교수	명예, 봉사

4) 위에서 기록한 이유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적어 보세요.

높은 보수와 명예 _____

5) 가장 좋아하는 직업 3개를 골라 아래 빈칸에 순서대로 적고 그 이유를 적어 본다.

순위	좋아하는 직업	선택한 이유
1	판사	높은 보수
2	치과의사	높은 보수
3	대학 교수	명예, 봉사

• ‘싫어하는 직업’으로 분류된 직업들을 살펴 보고, 싫어하는 이유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적어본다.

기계적인 일, 반복성, 낮은 보수 _____

• ‘결정할 수 없는 직업’으로 분류된 직업들 중, 나중에 좀 더 탐색해 보고 싶은 직업이 있다면 아래에 적어본다.

자살예방상담가, 소셜커머스 품질관리사 _____

6) 선호유형 찾기 단계

‘좋아하는 직업’으로 분류된 카드를 홀랜드 유형으로 각각 정리한다. 다음의 도표에 유형별 카드 개수를 헤아려 기록하고 계산하여 합계를 산출한다.

7) 결과요약단계

이 단계는 직업카드 분류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직업들과 그 직업들에 대한 정보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요약하도록 돕는 단계이다. 결과요약단계는 분류활동을 하면서 흩어져 있는 직업지식들을 머릿속에 잘 정리하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진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또한 진로선택에 요구되는 진로정보수집 능력,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에 구두 혹은 필기로 답하게 하여 직업카드 분류활동을 요약하고 마무리 한다.

·나의 홀랜드 유형 코드는 _____

·내가 좋아하는 직업들은 _____

·내가 싫어하는 직업들은 _____

·새롭게 알게 된 직업들은 _____

·직업카드 분류활동을 통해 나는 _____

2. 자아정체감 이론

자아정체감은 자신의 성격의 동일성과 계속성에 대한 인식에 의해 발달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불안정감에 의하여 역할 혼미에 빠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즉 청소년기의 성격 발달을 자아정체감의 위기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출생한지 1년 정도의 경험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때 기본적인 신뢰성이 형성된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으로서 정서적인 안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자아의 중심역량들 중의 하나

인 만족 지연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신뢰감은 아동기 때 여러 대상을 동일시함으로써 실미 사회적 적합성이 경험에서 확인될 때 자아정체감의 결정체가 된다. 그러나 진정한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에 이르러 동일성의 유용성이 없어지는 데서 시작된다고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살펴볼 때 자아정체감의 형성이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반드시 획득해야만 할 발달과업임과 동시에 청소년기의 중심적인 발달과업이다. 다시 말하면, 자아정체감은 인간이 반드시 획득해야만 할 과업으로서 생애교육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발달

1950년에 미국의 정신 분석학자 Erikson이 정체감이라는 개념을 정신분석학적 자아심리학의 기본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Erikson은 자아정체감을 개인의 자아가 그의 인격 체제를 통합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질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동시에 자신의 자아통합화 방식이 자기가 타인에게 주는 개인적 의미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견지해 나가는데 유효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자아정체감이란 자기의 연속성, 단결성, 또는 독자성, 불변성이고 또 이와 같은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인 것이다(Erikson, 1968a).

Erikson은 '나는 무엇이다.'라는 실감을 ego-identity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 그렇게 생각하거나 때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밑바탕에서 항상 무엇을 하든 그것이 아니면 인생의 모든 것을 볼 수 없게 될 정도로 개인에게 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만을 자아정체감이라 부른다.

Erikson은 사람의 생애를 8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마다 긍정적인 발달국면과 성취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 발달국면으로 나누었으며 이런 발달 단계에서 5단계의 청소년기를 타 단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보았는데 그 이유는 이때가 자아정체감 형성의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이다.

Erikson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첫째, 자신을 내적동일감(inner sameness)을 지닌 존재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날의 나와 지금의 내가 근본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나다'라는 인식이다.

둘째, 나의 사회적 환경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서 같은 동일성과 일관성을 지각해야 한다. 이는 그가 과거에 발달시킨 내적 동일성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지각 할 때에도 인식될 것이라는 확신감을 전제로 한다. 청소년이 자신의 자아개념과 사회적 이미지에 대해 불확실할 경우에는 의심, 혼동, 무관심의 느낌으로 인해 전체성의 출현이 방해를 받는다.

셋째, 개개인은 일관성의 외적 내적 선상 사이에 서로 상응되는 결과적 자신감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자아 인식은 대인관계의 경험에서 얻은 적절한 지지에 의해 타당화 되기 때문이다. 이는 개개인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획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성취들이 정체감 발달에 기여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Erikson은 성공적인 청소년기를 위한 기초와 통합된 정체감 획득은 초기 아동기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동일시하는 사회집단에 큰 영향을 받음은 당연한 일이다. Erikson은 인기 있는 대중스타나 반문화 집단 등과의 과잉 동일시가 청소년들의 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를 경고하고 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현재의 사회 환경 때문에 청소년기에 정체감 발달에 실패하면 정체감 위기를 초래한다. 정체감 위기 혹은 역할 혼동은 직업의 선택에 어려움을 겪거나 추후의 교육이 어렵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심한 무력감, 혼란감, 허무감을 경험한다. 그들은 부족감, 비인간화, 소외감을 느끼며 때로는 부모나 동료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정체감인 부정적 정체감을 추구하게 된다.

Erikson 이론을 기초로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이라는 문제가 심화되는 원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변화와 성적인 성숙의 시기로 내적 충동의 질적, 양적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심리적 역동을 조절하고 통합하기 위해 자아정체감 정립의 문제와 대면하게 된다.

둘째,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주변인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 규정의 문

제에 부딪치게 된다.

셋째, 진학이나 취업 등 선택이 강요되는 시기로 자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또한 진지하게 탐색하고, 주변상황을 점검할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다.

넷째, 인지 능력의 향상으로 인해 사고가 현실에서 벗어나 가능성의 세계로 확대되면서 자신의 위치, 역할, 능력, 가능성, 가치 및 이념들에 대한 검토와 확인 재규정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

다섯째, 이제는 동일시들만으로는 선택과 책임을 다할 수 없으므로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취사선택하여 방향을 잡아야 하는 시기이다.(서봉연, 1988, 재인용)

Marcia(1966)는 자아정체감을 여러 가지 충동, 능력, 신념 및 개인의 생활사 등의 자체 발생적인 내적, 역동적인 체계인 바, 이는 곧 '자기 구조'라고 정의하였다. Marcia는 구조화된 면담 도구를 개발하여 직업, 종교적 사상 그리고 일련의 정치적 가치관들을 확고하게 실행하는 지에 따라 청소년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했다.(Marcia, 1994)

첫째, 정체성 혼미(identity diffusion)로서 이 상태에 있는 청소년은 삶의 목표와 가치를 탐색하려는 시도를 보이지 않거나,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나 어떤 확고한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체성 혼미는 청소년기 초기에 가장 보편적이지만,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성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정체성 조기 성숙(identity foreclosure)으로서 이 상태의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들을 가장 잘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는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앞일을 실행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 경우는 부모들의 목표, 가치 그리고 생활방식을 그대로 택하는 상태, 즉 부모나 그 밖에 권위에 의해 주어진 대상의 가치관을 비판없이 받아들여 이에 동조한다. 부모가 청소년들에게 기대하고 추천하는 생애과업을 주의 깊게 고찰하지 않고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일 때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이들은 청소년기를 매우 안정적으로 보내는 것 같으나 성인기에 뒤늦게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즉, 외적 상황이 바뀌거나 외적 충격이 오면 유지되던 정체성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셋째, 정체성 유예(identity moratorium)로서 이 상태는 Erikson이 언급한 정체

성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지만 안정성과 만족이 결핍된 상태로 대개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정체성 확립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그것이 지닌 가치, 흥미, 사상 및 경험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상태인 바, 스스로의 결정을 위해 다소간의 심리적 유예 기간을 갖는 것은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필요하기도 하다. Marcia는 정체성 유예를 정체성 성취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과도기적 단계로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건강한 현상이라고 보았다.

넷째, 정체성 성취(identity achievement)로서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는 상태이다. 상황적 변화에 따른 동요 없이 성숙한 정체성을 유지하게 된다. 정체성 성취자는 어떤 한 가지 직업이나 사상에 대해 비교적 강한 개인적인 과업을 달성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 위기를 해결한 사람이다.

정체성이 성취된 청소년들은 삶의 목표·가치·직업·인간관계 등에서 위기를 경험하고 대안을 탐색했으므로, 확고한 개인적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자아정체감이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실존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자아정체감이란 타인에 대해 자신이 갖는 동질성 및 일관성과 부합되는 내적 동질성, 연속성을 유지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 정체감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갖는 상(像:image)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 상은 자아상(self-image)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나서 죽을 때까지 그 나름대로 자신에 대한 상, 즉 정체감 상(identity image)을 발전시키고 있다.

3. 진로 결정효능감 이론

진로결정효능감이라는 개념은 Bandura의 자기 효능감 이론을 진로발달분야에 응용하여 개념화한 것이다. Bandura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특정한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하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라고 정의했다.

진로 결정효능감 이론은 1980년 초반에 Betz와 Hackett에 의해서 이론적 발달

을 하게 되었다. Betz와 Hackett는 진로 결정효능감을 진로선택과 적응에 필요한 여러 행동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기대의 전체적인 수준으로 보았으며, 자기 효능감 기대는 세 가지 차원으로, 수준(개인이 수행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임무의 어려움에 대한 정도), 강도(자신의 주장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 보편성(효과적이라고 느끼는 상황의 범위)으로 구성된다. 진로 및 직업선택과 관련된 성숙 수준은 자신의 결정 및 선택에 대한 확신 정도를 나타내는 진로결정효능감은 다양한 진로 탐색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확신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과 정확하다는 믿음을 갖게 해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진로결정효능감이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자신감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가. 진로의사결정이론

진로의사결정은 살아가는 동안 선택해야 할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다. 누구나 정해진 삶의 길이 있다면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겠지만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기에 진로의사결정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이현림, 2000).

진로의사결정은 진로와 관련된 이론의 구성 요소로서 특히 의사결정이론의 개념과 과정을 포괄적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진로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한 진로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Tolbert, 1980). 진로의사결정이론들은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진로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선택들이 행해지는 중요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진로의사결정을 하는 시점을 교육적 선택, 직장 선택, 직업의 변화 등에서 겪는 중요한 변환점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다른 진로의사결정이론들은 삶의 전체에 걸쳐서 지속적인 진로선택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은 어떤 진로 선택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인식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중요한 진로의사결정을 내린다고 본다(이현림, 2003). 이러한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계속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대표적인 진로의사결정이론으로 Gelatt(1962), Katz(1963), Tiedeman 과

O'Hara(1963) 그리고 Harren(1979)의 이론이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Gelatt의 이론

Gelatt(1962)의 이론은 상담에 접근하기 위한 토대로 고안되었지만, 이를 직업에 적용함으로써 진로선택과 발달, 과거 경험의 영향, 단기적·중기적·장기적 의사결정간의 관계 등에 대한 순환적 의사결정과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훌륭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을 상담의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훌륭한 결정은 결과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진로의사결정의 순환적 과정은 결정을 내려야 할 목표를 정의한 후에 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갖고 가능한 대안을 탐색한다. 그 다음으로 각 대안들의 실현가능성을 예측해 보고, 각각의 대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행동계획을 선택하여 진로의사결정을 내린 후 실행에 옮기고 나서,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이 이론은 실제로 진로선택과 발달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순환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Tolbert, 1980).

먼저 진로목표를 세운 후에 그에 따르는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를 갖고 가능한 대안을 탐색하는데, 이러한 정보사용이 Gelatt이론의 핵심이 되는 과정이다. 다음으로 각 대안들의 가능성을 신중히 평가하고, 후에 의사결정을 한다. 이러한 과정은 평가를 거쳐 수정되고 보완되며 목표수정을 위한 피드백의 자료로 쓰인다. 이러한 순환 과정을 요약하면, 목적의식 수립을 위한 정보수집, 가능한 대안의 열거, 각 대안의 실현가능성 예측, 가치 평가, 의사결정, 의사결정의 평가, 재투입의 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의사결정시에 이러한 순환 과정이 반복된다. 따라서 의사결정은 주기적이며 계속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Katz의 이론

가치결정에 근거를 둔 이론은 개인의 목적을 결정하는 업적, 관계성, 명성, 수입, 여가시간 등과 같은 성격의 기본적인 성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제안들은 가치를 점검하여 개개인의 가치 실현을 극대화시켜 주는 직업을 식별해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진로지도 체제인 ‘상호작용 진로지도 정보의 체제’가 이러한 제안에 바탕을 두고 있다(Katz, 1963).

상호작용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내담자가 일련의 단계들을 거쳐 적합한 진로의 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준다. 이때의 가치체계 과정은 다른 사람들이 지닌 가치와 비교하여 각 개인이 추정한 각각의 가치가 지닌 장점들을 수용함으로써 시작된다. 그 후에 각 개인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진로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또한 각 가치의 최소한의 출발점을 판별하기 위해 자신의 진로의사결정을 검증해 본다.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이 지닌 가치를 조화시키는 것은 가치의 크기를 다중화 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각 직업에 대한 가치가 반환된다. 각 직업에 대한 반환 가치가 효율적일수록 개개인은 더 적합한 직업을 얻게 되며, 마침내 진로의사결정을 획득하는 능력에 있어서 개인의 신념은 각각의 대안들에 대해 ‘기대된 가치’를 부여하게 되며 기대된 가치가 높을수록 더욱 더 적절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3) Harren의 진로의사결정이론

Harren(1979)은 대학생 연령의 진로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발달과 진로의사결정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인들을 고려한 광범위한 모형을 발달시켰다. 그의 모형은 의사결정과정만이 아니라 이 핵심 과정과 다른 성격 변인들과의 관계를 가정한 점에서 Tiedeman과 O'Hara의 모형을 확장시켰다. 또한 그는 개개인이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는가는 개인의 특징과 의사결정의 환경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며,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이해할수록 만족스러운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돕기 위해 자신의 이론에 포함된 의사결정의 과정, 의사결정의 특징, 학생이 당면한 발달과업, 그리고 의사결정 상황에 대한 환경요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인식, 계획, 확산, 이행의 네 단계로 요약하고 각 단계에서 문제의 핵심을 끌어내며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원활히 하는 해결책을 확실히 하려고 하였다.

첫째, 인식 단계는 현재 진로계획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행하다는 것을 느끼는 상태이다. 이는 불만족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이 진로의사결정의 단계인 인식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또한 불만족의 원인을 확인할 때 더욱 현

실적이고 적절한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이 되는 동기는 예를 들면, 전공을 택하는데 있어 대학의 압력, 진로를 결정하거나 바꾸는데 있어서 부모의 압력,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데 대한 초조감과 생계에 대한 압박,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더 많은 학교교육을 요구할 때오는 압박감 등이다.

둘째, 계획 단계로 양자택일, 확장, 조사와 구체화의 과정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다. 불만족의 근원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수립함으로써 자신에 대해서 더욱 잘 알 수 있고 불만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특히 계획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직업에 대해 잠정적인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셋째, 확신 단계로 자신이 계획했던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동기를 친한 친구, 부모 등과 함께 의논해 보고 그들의 반응을 얻는다. 사람들의 평판이 부정적이라면 계획단계로 되돌아가서 정보를 좀 더 수집하거나 다른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학교생활에서 주위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얻는 것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들이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판을 한다면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좀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피드백은 가치 있고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실행에 있어서 개인의 확신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이행 단계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Harren은 이를 다시 동조, 자율, 상호의존의 세 가지 하위단계로 나누고 있다. 동조 단계에서 개인은 사회적 승인이나 인정에 대한 높은 욕구를 경험하고 외부 환경에 의해 자신의 욕구, 가치, 목표가 경시되거나 억압당하는 것을 경험한다. 자율 단계에서는 자신의 욕구가 주장되고 과대 포장되기도 하며, 상호의존 단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보적 및 상호적 작용으로 변화한다. 이와 같이 진로의사결정을 내릴 때 의사결정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개인이 내린 결정이 좀 더 만족스러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계에서 진로의사결정의 과제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인의 의사결정유형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의 교육이나 진로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상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측면으로 이해되어 왔다(Harren, 1979; Gordon, Coscarelli & Sears, 1986). Janis와 Mann(1977)은 의사결정 유형을 개인이 중요

한 의사결정에 접근하고 해결하는데 활용하는 전략으로 정의하며, Arroba(1978)는 특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접근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의한다. 특히 의사결정이란 개인의 의사결정 과업을 지각하고 그에 반응하는 특징적인 형식 혹은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선택, 결정하는 것이며, 이것이 직업 행동에 적용될 때 진로의사결정유형으로 나타난다(Harren, 1979). 따라서 의사결정 유형은 개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선호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결정유형에 대한 연구는 Dinkiage(1968)에 의해 처음 시작 되었다. 그는 학생들의 교육, 직업, 개인적 영역에서 그들이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결정했는가에 대하여 면접을 한 후 그 자료에 기초하여 계획형, 직관형, 순응형, 운명론형, 충동형, 지연형, 번민형, 마비형의 여덟 가지 의사결정유형을 분류했다. Arroba(1977)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의사결정유형을 논리형, 망설이는 형, 생각 없이 결정하는 형, 직관형, 감정형, 순응형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Krumboltz, Mitchell 및 Jones(1976)는 의사결정유형을 합리적, 충동적, 직관적, 의존적, 운명론적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Harren(1979)은 Dinkiage가 분류한 의사결정유형을 재분류 하였는데, 개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전략 또는 정의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정도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도에 따라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대체로 이 세 가지 유형 분류가 가장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각 유형별 특징을 간략히 제시하면, 첫째, 합리적 유형은 자신과 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신중성, 논리적 의사결정, 의사결정의 책임 수용이 특징이다. 둘째, 직관적 유형은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만 미래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정보탐색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며 의사결정의 기초로서 상상과 정서적 지각을 사용한다. 셋째, 의존적 유형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남에게 전가하며 타인의 권위와 기대, 인정에 이끌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가진다.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의사결정유형에 관심을 가지면서 진로결정에서 의사결정유형의 역할을 확인하려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Harren(1979)은 세 가지 의사결정유형 가운데 합리적 유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았는데, 합리적 유형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더 진전된 단계(확신, 이행단계)와 긍정적인 상관을 나타냈으며, 의존적 유형은 의사결정과정의 진전과 부적인 상관을 보여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이 진로결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Lunneborg(1978)도 의사결정유형에서의 성차를 조사하기 위하여 Harren의 진로결정검사의 의사결정유형척도와 매우 유사한 진로의사결정유형척도를 개발하여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그 결과 의사결정유형의 사용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학생 표집의 경우 합리적 유형은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 더 진전되어 있으며, 직업자아개념 구체화, 전공과 직업선택에 대한 확신과 만족 점수가 더 높았다. 의존적 유형은 진로결정 과정의 초기단계(인식, 계획단계)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직업자아개념 구체화, 전공과 직업선택에 대한 확신과 만족 점수는 더 낮았다. 직관적 유형은 의존적 유형과 낮은 긍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을 뿐 다른 변인들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이 결과에서 Lunneborg는 의사결정유형 가운데 합리적 유형이 진로결정과정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합리적 유형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의존적 유형을 억제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직업기능으로 이끌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한 의사결정유형 검사를 사용한 국내외의 여러 연구들은 만족스럽고 확실한 진로결정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유형이 도움이 되며, 의존적 유형이 비효과적이고 지양해야 할 의사결정유형임을 지적하고 있다(Casserly, 1982; Cook & Harren, 1979; Harren, 1979; Krumboltz, 1989; Lunneborg, 1978; Philips & Strohmmer, 1982; 김판환, 1997; 고향자, 1992). 이에 따라 진로의사결정 상담프로그램에서도 진로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이나 강화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김판환, 1997; 고향자, 1992; 정채기, 1992).

4.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효능감과의 관계

가. 진로집단상담과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이란 Erikson(1981)에 의하면, 자신의 독특성에 대해 비교적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으로써 행동, 사고 및 감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일관성이다.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게 하고, 현실의 의미와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자아구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개인의 자아정체감은 미래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게 되므로, 개인의 잠재능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수행한다(장휘숙, 1993). 따라서 Grotevant(1987)는 진로발달의 변인을 이해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 과정에 있어서 중심적인 요소가 되는 탐색활동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에 있어 진로탐색활동은 자아정체감을 명백히 하기 위한 자기 자신 및 환경에 대한 정보수집의 개인적인 방법을 반영한다고 주장해 왔다(Grotevant & Cooper, 1988). Marcia(1980)는 Erikson의

자아정체감의 개념을 분석하여 네 단계로 나누어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도로 설명했다. 자아정체감 발달의 첫 번째는 혼미단계로써 이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심각한 고찰이 없을 뿐 아니라, 직업선택에 대한 관심도 없으며 의사결정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는 조기완료 단계로서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려가 깊지 못해서 자신의 장래 진로에 관해 막연한 관심을 가질 뿐이다. 세 번째는 유예단계로서 자아정체감의 성취를 위해 수많은 관심과 의문이 제기되고 이로 인해 위기상태에 놓이는 시기이며, 적극적이고 활발한 장래 직업에 관한 질문을 형성하고 탐색한다. 의사결정 상황에서도 주로 자기 내부로부터 유추된 계획된 전략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정체감 성취 단계로서 이 단계의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반성적이고 계획적이며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분명한 자기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직업 선택도 결정되는 단계이다.

한편, Tiedman과 O'Hara(1963)는 진로발달을 직업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새로운 경험을 쌓고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가며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직업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기초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Blustein과 Phillips(1990)는 자아정체감 수준과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유형간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했다.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영향을 주리라고 기대되는 변인으로 학교 수준, 생활 변동, 장래 전망,

동일시 대상, 자기의식의 일관성(과거-현재, 현재-미래간의 일관성)의 여섯 개의 변인을 검토하였는데 장래 전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다(서봉연, 1974). 즉, 장래 전망이 밝은 집단일수록 남녀 모두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고, 하위 구조상으로도 안정된 자아정체감을 보이고 있다. 자아정체감이 진로 결정에 미치는 효과가 있으므로, 청소년기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직업적 측면에서도 중요함을 시사해 주었다(정채기, 1991). 따라서 적절한 자아정체감의 형성, 지도를 통해 진로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이경희(2005)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았을 때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수(2005)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MBTI 집단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았을 때 자아정체감이 향상되었다고 하였고, 조장희(2005)는 집단상담에 의하여 전문계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조연희(2006)는 대인관계 프로그램을 중학생에 적용해 보았을 때 자아정체감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진로탐색 프로그램이나 자기성장 프로그램, 또는 인성계발과 관련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적용했을 때 학생들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경우 학생들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진로와 진로결정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은 개인의 학업성취, 학업의 지속성, 진로탐색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여러 연구를 통하여 보고되었다. 개인이 자신의 흥미를 진로선택 목표로 변환하고, 목표를 위한 진로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로결정효능감과 함께 이들을 중재하는 여러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Solberg 등(1995)은 진로탐색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확신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과 개인적인 직업 가치 등을 효율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선택

이 정확하다는 믿음을 갖게 해준다고 하였다(임은미 · 김현진, 2002). Taylor와 Betz(1983)는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직업정보 등의 진로결정 행동들에 관련된 자신감이나 확신감은 진로발달을 예측할 타당한 변인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진로관련 수행 및 성취 경험의 영역으로는 자기이해를 위한 활동, 직업세계 및 직업정보의 탐색을 위한 활동,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활동 등을 들 수 있다(임은미·김현진, 2002). 한편, 진로결정효능감은 직업체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밝혀 주었다(Nelson, 1990).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습득하여 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진로문제는 광범위한 자신감이나 학업에서의 자신감과 관련되어 있기 보다는 자신의 체계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체계에 대한 확신과 관련 되어있기 때문에 진로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신감’보다는 ‘효능감’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이은경, 2000).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으면 다양한 범위의 직업을 고려하게 되고, 진로결정효능감이 낮으면 제한적인 직업을 고려하게 된다고 하였다(정진선, 2001).

진로결정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로 홍 설(2006)은 「진로 집단 상담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진로성숙, 진로의사결정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중학생의 진로태도와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정희영(2007)은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서 자아정체감이 높을 수록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며, 주변사람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줄이고 자아상황에 대한 정보의 실제적이고 논리적이며 신중한 평가를 하는 것이 진로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김경애(2004)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중학생의 진로의식과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으며, 진로탐색에 흥미를 주어 앞으로의 직업선택과 진로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오미경(2006)은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진로성숙도를 비교한 결과 진로지향성, 직업적 성편견, 자율성, 자긍심 영역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정희영(2007)은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자아정체감을 비교한 결과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영역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정진선(2001)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성취할 수 있는 진로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이라고 정의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제한적인 직업을 고려하게 된다고 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주어진 과업 또는 행동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 갖는 신념을 말하는데, 이것은 행동을 지속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 즉, 구체적인 과제나 행동에 대한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행동을 피하는 반면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집단상담은 진로라는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동시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집단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적 발달과 진로발달을 도울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탐색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중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다양한 직업의 탐색,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 J시의 J중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남학생들로서 진로 집단상담의 내용과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15명씩 무선 배정하였다.

가. 연구대상의 동질성 검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효능감 동질성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먼저 자아정체감에 대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하여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표 III-1 실험집단·통제집단의 자아정체감 사전검사 평균(표준편차)

구분	실험집단 (n=15)	통제집단 (n=15)	<i>t</i>
주체성	3.59 (.61)	3.63 (.39)	-.18
자기수용성	3.61 (.86)	3.85 (.79)	-.84
미래확신성	3.61 (.69)	3.81 (.57)	-.87
목표지향성	3.18 (.84)	3.38 (.67)	-.72
주도성	3.03 (.81)	3.27 (.65)	-.89
자아정체감 총합	3.40 (.67)	3.58 (.51)	-.84

위의 표 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정체감의 5가지 하위요인과 자아정체감 총합 평균에 대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자아정체감에 대하여 동질집단임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진로결정효능감에 대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하여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표 III-2 실험집단·통제집단의 진로결정효능감 사전검사 평균(표준편차)

구분	실험집단 (n=15)	통제집단 (n=15)	<i>t</i>
직업정보	3.60 (.51)	3.65 (.67)	-.23
목표선택	3.85 (.75)	3.77 (.47)	.36
미래계획	3.53 (.72)	3.45 (.66)	.33
문제해결	3.45 (.71)	3.57 (.52)	-.51
진로결정효능감 총합	3.61 (.63)	3.61 (.50)	.00

위의 표 I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결정효능감의 4가지 하위요인과 진로결정효능감 총합 평균에 대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평균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자아정체감에 대하여 동질집단임이 확인되었다.

2.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교육정보원과 한국학교상담연구소가 공동 개발(2004)한 담임교사를 위한 중학교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의 연구 목적과 수준에 맞게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먼저 흥미와 적성에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총 5회기를 진행하고, 관심 있는 직업의 탐색을 통하여 자신의 미래 직업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3회기를 진행하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직업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록 2회기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실험 집단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1회 45분씩 총 10회기에 걸쳐 이루어져 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여러 측면에 대한 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 미래의 자신의 직업탐색, 잠정적인 진로의사결정의 경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제집단은 사전·사후 검사 이외에는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으며 프로그램의 회기별 주제와 활동 내용은 표Ⅲ-3과 같다.

표 III-3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영역	회기	제목	활동 내용	관련하위 요인
들어가기	1	진로를 찾아 출발!	직업 별칭 정하기 '나의 약속'작성하기 나의 소개서 작성하기	주체성 자기 수용성
흥미와 적성	2	내가 본 나	진로를 이루고 있는 것들 미래의 나의 모습	자기 수용성 미래 계획
	3	나의 꿈, 나의 직업	나의 흥미와 적성 알기 내가 잘 하는 일 알기	목표 선택 목표 지향성
	4	직업세계의 탐색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 찾기 나의 직업 찾기	목표 선택 주도성
	5	나의 가치관 알아보기	소중한 보물 가치관 경매	주체성 주도성
직업세계 탐색	6	교실에서 만나는 직업	좋아하는 교과와 직업 연결하기 교과와 관련된 직업의 종류 찾기	문제해결 직업정보
	7	우와! 이렇게 많은 직업이	숨은 직업 이름 찾기 내가 아는 직업 찾기 내가 모르는 직업 찾기	직업정보 문제해결
	8	나의 미래 설계하기	미래사회의 직업 알기 생활명세서 작성	목표 지향성 미래 확산성
진로 의사 결정	9	의사결정도 기술이다!	의사결정 방법 알기 의사결정 연습 나의 의사결정하기	주도성 자기 수용성
마무리 하기	10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	미래의 나의 명함 나누기 사람의 사탕바구니	미래 확산성 미래 계획 문제 해결

3. 연구 설계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설계이다.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종속변인은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효능감이다. 실험집단에만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에는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으며, 프로그램을 실시 전·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자아정체감검사와 진로결정효능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오전 0교시(08:00~08:45) 시간을 이용하여 주 2회, 회기당 45분씩 총 10회기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실험처치에 참여하였다.

연구 설계를 구체적으로 도식화하면 표 III-5와 같다,

표 III-4 연구 설계

R	G ₁	O ₁	X	O ₂
R	G ₂	O ₃		O ₄

G₁ : 무선배정한 실험집단

G₂ : 무선배정한 통제집단

O₁ , O₃ : 자아정체감검사, 진로결정효능감 검사 사전검사

O₂ , O₄ : 자아정체감검사, 진로결정효능감 검사 사후검사

X :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4.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효능감 검사의 결과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의 측정도구는 자아정체감의 사전, 사후검사는 박아청(2003)의 ‘자아정체감 검사’를, 진로결정효능감의 사전, 사후검사의 측정 도구는 Tayloy와 Betz (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의 단축형 (CDMSSES-SF)을 조아미(200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가. 자아정체감 검사

가. 자아정체감은 Dignan(1965)이 개발한 척도를 우리나라 설정에 맞게 박아청 (2003)이 재구성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이 척도는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의 5개 하위 영역에 각 10문항씩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예상 시간은 약 20분 정도이며 검사의 전문은 부록3에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는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다음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자아정체감 도구의 하위요인과 요인별 신뢰도

하위요인	측정내용	문항번호	신뢰도 계수
주체성	능력감, 즉 주관적인 역할 혹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배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느낌의 정도	1, 6, 11, 16, 21, 26, 31, 36, 41, 46	.73
자기수용성	자기의 실체와 성격특성 및 제반 능력과 취약점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정도	2, 7, 12, 17, 22, 27, 32, 37, 42, 47	.76
미래확신성	자신의 장래에 대한 계획에 확신을 갖고 있는 정도	3, 8, 13, 18, 23, 28, 33, 38, 43, 48	.74
목표지향성	주어진 과업을 수행 또는 실현하려는 의지의 정도	4, 9, 14, 19, 24, 29, 34, 39, 44, 49	.86
주도성	자신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려는 정도와 그 역할에 대한 인지능력의 정도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73

나. 진로결정효능감 검사

진로결정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Taylor 와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의 단축형(CDMSES-SF)을 조아미(200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결정효능감 척도는 직업정보 4문항, 목표선택 5문항, 미래계획 4문항, 문제해결 4문항의 4개 하위 영역에 총 17문항으로 되어 있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은 것이다. 검사 예산시간은 약 10분 정도이며 검사의 전문은 부록3에 수록되어 있다.

Taylor와 Betz(1983)의 CDMSES-SF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0이고,

진로결정효능감의 사전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88, 사후검사의 신뢰도 계수는.94으로 나타났다.

표 III-6 진로결정효능감 도구의 하위요인과 요인별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구성	신뢰도 계수
직업정보	1, 8, 12, 15	.72
목표선택	2, 5, 9, 13, 14	.74
미래계획	3, 6, 10, 16	.74
문제해결	4, 7, 11, 17	.70

5.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처리는 SPSS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첫째,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자아정체감 검사지와 진로결정효능감 검사지의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험집단에만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지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실험 처치 후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의 사전·사후 검사에서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구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효능감 검사의 결과를 밝히고자 한다.

1. 자아정체감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표 IV-1 자아정체감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Cronbach α)

구분	문 항 번 호	신뢰도	
		사전	사후
주체성	1, 6, 11, <u>16</u> , 21, 26, 31, 36, 41, <u>46</u>	.78	.82
자기수용성	<u>2</u> , <u>7</u> , 12, <u>17</u> , <u>22</u> , <u>27</u> , <u>32</u> , <u>37</u> , <u>42</u> , <u>47</u>	.92	.83
미래확신성	<u>3</u> , 8, <u>13</u> , 18, 23, <u>28</u> , 33, 38, 43, <u>48</u>	.87	.93
목표지향성	<u>4</u> , <u>9</u> , <u>14</u> , <u>19</u> , <u>24</u> , <u>29</u> , <u>34</u> , <u>39</u> , <u>44</u> , 49	.90	.92
주도성	<u>5</u> , <u>10</u> , <u>15</u> , <u>20</u> , <u>25</u> , <u>30</u> , <u>35</u> , <u>40</u> , 45, <u>50</u>	.89	.88
전체		.96	.97

* 굵은체와 밑줄로 표시된 문항은 역산문항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12번 문항을 제외한 총 49개 문항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12번 문항을 제외하지 않았을 경우의 사전 검사 신뢰도는 .90, 사후 검사 신뢰도는 .80)

2. 진로결정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표 IV-2 진로결정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Cronbach α)

구분	문항번호	신뢰도	
		사전	사후
직업정보	1, 8, 12, 15	.58	.77
목표선택	2, 5, 9, 13, 14	.80	.86
미래계획	3, 6, 10, 16	.72	.84
문제해결	4, 7, 11, 17	.76	.87
전체		.91	.95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13번 문항을 제외한 총 16개 문항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13문항을 제외하지 않았을 경우의 사전 검사 신뢰도는 .59, 사후 검사 신뢰도는 .74)

3.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먼저 자아정체감에 대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하여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표 IV-3 실험집단·통제집단의 자아정체감 사전검사 평균(표준편차)

구분	실험집단 (n=15)	통제집단 (n=15)	t
주체성	3.59 (.61)	3.63 (.39)	-.18
자기수용성	3.61 (.86)	3.85 (.79)	-.84
미래확신성	3.61 (.69)	3.81 (.57)	-.87
목표지향성	3.18 (.84)	3.38 (.67)	-.72
주도성	3.03 (.81)	3.27 (.65)	-.89
자아정체감 총합	3.40 (.67)	3.58 (.51)	-.84

위의 표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정체감의 5가지 하위요인과 자아정체감 총합 평균에 대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자아정체감에 대하여 동질집단임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자아정체감에 대하여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평균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IV-4과 같다.

표 IV-4 실험집단·통제집단의 자아정체감 사후검사 평균(표준편차)

구분	실험집단 (n=15)	통제집단 (n=15)	t
주체성	3.98 (.65)	3.68 (.43)	1.49
자기수용성	4.46 (.60)	3.97 (.36)	2.72*
미래확신성	4.30 (.68)	3.87 (.67)	1.77
목표지향성	4.02 (.79)	3.56 (.52)	1.89
주도성	3.91 (.78)	3.40 (.46)	2.17*
자아정체감 총합	4.13 (.65)	3.69 (.42)	2.20*

* $p < .05$

위의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정체감 하위요인 가운데 ‘자기수용성’에 대하여 통제집단의 평균은 3.97(SD=.36)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실험집단의 평균은 4.46(SD=.60)인 것으로 나타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72, p < .05$). 또한 자아정체감 하위요인 가운데 ‘주도성’에 대해서도 실험집단의 평균($M=3.91, SD=.78$)이 통제집단의 평균($M=3.40, SD=.46$)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17, p < .05$). 이와 함께 자아정체감 전체 평균에 있어서도 실험집단의 평균($M=4.13, SD=.65$)이 통제집단의 평균($M=3.69, SD=.4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2.20, p < .05$).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통제집단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의 결과는 다음의 표 IV-5와 같다.

표 IV-5 통제집단의 자아정체감 사전·사후검사 평균(표준편차)

구분	사전검사 (n=15)	사후검사 (n=15)	t
주체성	3.63 (.39)	3.68 (.43)	-.55
자기수용성	3.85 (.79)	3.97 (.36)	-.65
미래확신성	3.81 (.57)	3.87 (.67)	-.55
목표지향성	3.38 (.67)	3.56 (.52)	-1.40
주도성	3.27 (.65)	3.40 (.46)	-.96
자아정체감 총합	3.58 (.51)	3.69 (.42)	-1.02

* $p < .05$

위의 표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정체감의 5가지 하위요인과 자아정체감 총합 평균에 대해서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평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 기간 동안 통제집단의 자아정체감 수준에는 변화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실험집단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IV-6과 같다.

<표 IV-6> 자아정체감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사전검사 차이 검증

구분	실험집단 (n=15)	통제집단 (n=15)	t
	사후-사전 평균(SD)	사후-사전 평균(SD)	
주체성	.39 (.78)	.05 (.37)	1.49
자기수용성	.85 (1.20)	.11 (.66)	2.10*
미래확신성	.69 (1.05)	.05 (.37)	2.21*
목표지향성	.84 (1.27)	.18 (.50)	1.87
주도성	.88 (1.32)	.13 (.54)	2.03
자아정체감 총합	.73 (1.02)	.11 (.40)	2.19*

* $p < .05$

위의 표 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정체감 5가지 하위요인중 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앞서 통제집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평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실험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이는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실험집단의 자아정체감 수준을 향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4.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다음으로 진로결정효능감에 대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하여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표 IV-7 실험집단·통제집단의 진로결정효능감 사전검사 평균(표준편차)

구분	실험집단 (n=15)	통제집단 (n=15)	<i>t</i>
직업정보	3.60 (.51)	3.65 (.67)	-.23
목표선택	3.85 (.75)	3.77 (.47)	.36
미래계획	3.53 (.72)	3.45 (.66)	.33
문제해결	3.45 (.71)	3.57 (.52)	-.51
진로결정효능감 총합	3.61 (.63)	3.61 (.50)	.00

위의 표 I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결정효능감의 4가지 하위요인과 진로결정효능감 총합 평균에 대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자아정체감에 대하여 동질집단임이 확인되었다.

표 IV-8 실험집단·통제집단의 진로결정효능감 사후검사 평균(표준편차)

구분	실험집단 (n=15)	통제집단 (n=15)	t
직업정보	3.92 (.74)	3.73 (.64)	.73
목표선택	4.40 (.75)	4.05 (.54)	1.47
미래계획	3.83 (.66)	3.38 (.69)	1.82
문제해결	4.15 (.80)	3.52 (.59)	2.48*
진로결정효능감 총합	4.08 (.71)	3.67 (.55)	1.75

* $p < .05$

위의 표 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결정효능감 하위요인 가운데 ‘문제해결’에 대하여 통제집단의 평균은 4.15(SD=.80)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실험집단의 평균은 3.52(SD=.59)인 것으로 나타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48, p < .05$).

그러나 문제해결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과 진로결정효능감 전체 평균에 대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프로그램이 진행된 기간이 짧은 관계로 인하여 이해가 부족하거나 학교 교육에만 몰두할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기도 하며, 사전·사후 검사기간이 짧아 앞서 진행된 검사지에 대한 기억으로 인하여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을 보일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직업정보와 목표선택 미래계획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통제집단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의 결과는 다음의 표 IV-9과 같다.

표 IV-9 통제집단의 진로결정효능감 사전·사후검사 평균(표준편차)

구분	사전검사 (n=15)	사후검사 (n=15)	t
직업정보	3.65 (.67)	3.73 (.64)	-.64
목표선택	3.77 (.47)	4.05 (.54)	-2.33*
미래계획	3.45 (.66)	3.38 (.69)	.49
문제해결	3.57 (.52)	3.52 (.59)	.51
진로결정효능감 총합	3.61 (.50)	3.67 (.55)	-.64

* $p < .05$

위의 표 I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결정효능감의 4가지 하위요인 가운데 ‘목표선택’의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평균과 사후검사 평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33, p < .05$). 이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닌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실험집단의 목표선택 요인의 평균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실험집단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IV-10과 같다.

<표 IV-10 > 진로결정효능감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사전검사 차이 검증

구분	실험집단 (n=15)	통제집단 (n=15)	t
	사후-사전 평균(SD)	사후-사전 평균(SD)	
직업정보	.32 (.85)	.08 (.51)	.91
목표선택	.55 (1.19)	.28 (.47)	.81
미래계획	.30 (1.01)	-.07 (.53)	1.25
문제해결	.70 (1.09)	-.05 (.38)	2.52*
진로결정효능감 총합	.47 (.97)	.06 (.38)	1.50

* $p < .05$

위의 표 I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결정효능감의 4가지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 요인에 대하여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평균과 사후검사 평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49, p < .05$).

앞서 통제집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검사 평균과 사후검사 평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실험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이는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실험집단의 자아정체감 수준을 향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통제집단의 경우에서도 ‘목표선택’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바, 실험집단에서 나타난 문제해결 요인의 평균 상승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효능감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물이 아직 미비하고 중학생만을 위한 진로결정효능감 측정 연구물이 부족함을 살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김옥환(2001)의 연구결과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와 김진희(2005)의 학급단위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는 진로자기효능감 사전, 사후 득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V. 논의, 결론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서 적용해 보았을 때 청소년기에 형성되어야 할 중요한 발달 과업인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효능감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줄 것이다.

위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J시에 소재하고 있는 J 중학교 1학년 한 학급 38명중에서 본 연구자가 진로집단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19명 중 15명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였고, 본 연구자가 아닌 다른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는 같은 반 19명중 15명을 통제집단으로 선정 하였다. 실험집단에는 사전 검사, 진로탐색 집단상담 활동,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에는 사전 검사,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자아정체감의 사전, 사후검사의 측정도구는 박아청(2003)의 ‘자아정체감 검사’를 본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주도성의 5개 하위영역에서 각 10문제씩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다.

진로결정효능감의 사전, 사후검사의 측정 도구는 Tayloy와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의 단축형(CDMSES-SF)을 조아미(2001)가 번안한 것을 본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

진로결정효능감 척도는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의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은 것이다.

실험집단은 2015년 3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주2회 45분씩 총 10회기에 걸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교육정보원(한국학교 상담연구원, 2001)에서 개발한 ‘담임교사를 위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각 회기별, 단계별 목표에 맞게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의 사전·사후 검사에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t -검정을 실시하여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효능감 향상에 미친 효과를 확인하였다. 자료처리를 위해서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는 통제집단에 비하여 자아정체감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둘째,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는 통제집단에 비하여 진로결정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효능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2. 결 론

본 연구의 가설검증과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

정체감 5가지 하위요인중 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문가연(2003)의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에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정복연(2004)의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주도성 등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박주열(1992)의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자기수용성에 유의한 효과가 있고 다른 요인들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이는 집단참여자의 수준과 프로그램의 구성내용이나 적용시간, 대상인원수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체성 요인과 목표지향성 요인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은 집단 참여자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타인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면이 있었다는 점과 합리적 의사결정 방법 접근 등의 프로그램 운영 미흡을 들 수 있고, 유도성 요인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은 중학교 1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 및 장래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이 학생 혼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부모나 교사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진로와 자아정체감의 정적상관을 나타낸 연구(정채기, 1991; Blustein, 1996; Gysbers & Mooer, 1987; Vondrac, 1992)에 의해 지지되었으며, 본 연구의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아정체감에 대한 확신감이 생기고, 적성과 직업과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는 과정과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탐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아정체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만족과 성공감을 크게 나타낸다는 연구(Skovhot & Morgan, 1981)와 자아정체감의 형성이 진로와 관련된 정보의 탐색과 확신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 연구(Blustein, Devenis, & Kidney, 1989)를 지지해 준다. 이에 대해 노경희(1991)는 진로집단상담이 자기이해와 자신에 대한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 교육적 성취 등의 평가를 통해 자신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다양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Super(1957)는 중학교시기에 일의 가치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가치 명료화에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진로집단상담이 실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직업가치에 대한 탐색을 충분히 고려한 점도 긍정적 효과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Holland(1981)는 진로 중재를 위해 직업정보의 공개, 직업 포부의 인지적 재연, 자아와 직업세계에 관한 이해, 상담자나 참여자의 강화 또는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진로집단상담에 이러한 부분들이 충실히 행해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자아정체감이 확립된 개인은 진로탐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이로 인해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진로적용도 높은 수준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는데(Raskin, 1994) 이러한 측면에서 자아정체감의 긍정적인 변화는 매우 의의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래전망이라고 하였는데(서봉연, 1974), 본 프로그램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와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환경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봄으로써 참여자들이 장래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게 된 것에도 효과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Marica(1980)는 자아정체감의 단계를 흥미, 조기완료, 유예, 성취의 네 단계로 나누어 진로에 대한 관심도를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네 가지 상태에 따라 자아정체감 형성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연구(Skorikov & Vondracek, 1998)도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라 자아정체감 변화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를 통해 자아정체감의 향상을 위한 진로집단상담을 더욱 더 연구하고 활성화하여 사회적 특성과 중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모델의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환경속에서 진로집단상담을 실시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계발해주고 흥미 있는 분야의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진로경험을 가지게 하는 기회의 폭을 넓혀 줄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에 긍정적인 발달을 위하여 학교현장에서 적용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는 자아정체감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집단상담이 중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결정효능감의 4가지 하위요인 중 목표선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문제해결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과 진로결정효능감 전체 평균에 대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효능감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물이 아직 미비하고 중학생만을 위한 진로결정효능감 측정 연구물이 부족함을 살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김옥환(2001)의 연구결과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와 김진희(2005)의 학급단위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는 진로자기효능감 사전, 사후 득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곽광선(2004)의 진로인식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진로결정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교육진로 자기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는 연구와는 상반됨을 볼 수 있다. 이는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적성 및 흥미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평가할 수 있는 자기 이해력과 관심 있는 직업들을 주어진 범위안에서나마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직업정보력, 체계적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활동들이 집단원의 진로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진로결정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에 대하여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①회기(10회기)가 너무 짧았을 수 있고 ②시간(5주)이 부족했다거나 ③학교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수도 있고 ④부모님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자녀의 목표가 정해진다거나 ⑤학교 교육에만 몰두해야 한다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 및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결정효능감은 환경에 의해서 지지받는다라는 연구들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Lapan, Hinkelman, Adams & Tuner, 2000). 한편, 개인은 자신의 능력과 개인적인 직업 가치 등을 효율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이 정확하다는 믿음을 갖게 해준다고 하면서, 진로관련 수행 및 성취 경험의 영역으로 자기이해를 위한 활동, 직업세계 및 직업정보의 탐색을 위한 활동,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임은미, 김현진, 2002).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위해 지도자가 직업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지시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집단원들이 진로집단상담 기간 동안 스스로 정보를 찾고 자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주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합리적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활동들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진로집단상담은 중학생들의 진로결정효능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주어진 환경(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수성)이 직업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한계에 있으며, 그로 인하여 정해진 직업카드를 통해서 2만여 직종의 직업을 알아보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그러한 문제 해결의 과제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미래 계획을 그려 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이는 진로집단상담 활동 도중에 객관적 관점과 자신의 주관적 관점 사이의 차이가 생길 때, 그 갈등을 해결하려는 집단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함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익숙하지 못하고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면이 있었다는 점과, 이런 사례에 대해 아직 토론이나 공동작업을 하는데 서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시간적 배려가 집단상담 프로그램 안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로집단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중학생들의 진로결정효능감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중학생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나,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의 교육적 현실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은진, 2001).

본 연구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교과와 직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우리나라 교육 여건과 현실에 대해 직시하여 효율적인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은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 지므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특별활동, 창의적 재량활동 및 교과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진로집단상담을 적용하면 중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중

통제집단의 통제에 관한 사항인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나 본인이 진행하는 집단에서도 실험집단에서만 첫 회기 때 서약서를 이용하여 통제집단의 오염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어 통제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자아정체감 전체와 하위영역의 주체성을 제외한 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 및 주도성이 향상되었다. 이는 진로집단상담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함에 따라 자아정체감의 향상을 위한 진로집단상담을 더욱 더 연구하고 활성화하여 사회적 특성과 중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모델의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환경 속에서 진로집단상담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볼 때, 집단상담을 통한 진로교육 특히, 진로탐색 집단상담이 중학생들로 하여금 자아의 발견, 자기이해, 직업에 대한 이해,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 잠정적인 진로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중학생의 독특성과 현실감각에 맞는 진로 집단상담에 대한 모델의 수정,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의식과 자아정체감의 향상을 위한 진로 진단상담을 더욱 더 연구하고 활성화함과 더불어 사회적 특성과 중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모델의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환경 속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3. 제언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연구상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는 자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바른 자아정체감 형성은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다. 연구결과 사후검사를 통해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효능감에 긍정적인 향상을 보였으나 이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정체감 과제와 진로결정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중학생을 위한 학년별 수준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학년별로 연계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진행되는 상담자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중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한 전문상담가의 양성과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이 요구된다.

넷째,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시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량 활동시간이나 토요일 휴업일과 방학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다섯 째, 본 연구는 추후지도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사전·사후·추후검사 비교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후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강상익(1986). 집단상담이 고교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강순화(1990). 진로탐색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23, 102-118,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고대석(2002).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곽광선(2004). 진로인식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태도와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경모(2003). 진로탐색 집단상담이 남자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경애(2004).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진(2003).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 및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 대학원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의사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수자(1991).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고교생의 진로성숙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옥환(2001). 초등학교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개발과 효과분석.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김원희(2004). 중학생의 가정환경 지각과 자아정체감 및 학업서위도와의 관계.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2005). 학급단위 진로인식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충기(2000). 생활지도 상담 진로지도. 서울: 교육과학사
- 김충기· 김현옥(1993).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김관환(1997). 진로의결정 프로그램: 대학생용. **한국진로상담학회지**, 2(1), 36-65.
- 김해수(2002). **진로의사결정 집단상담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남승경(2005).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노경희(1991). **진로탐색 집단상담이 자아개념과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노기숙(2004).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2002). **재량활동시간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Ⅱ**. 중학생용. 대구: 대구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 대구직할시 교육과학연구원(1990). **진로교육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대구: **교육과학연구원**
- 부산시교육연구정보원(2004). **담임교사를 위한 중학교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부산: **세진문화사**.
- 부산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1998). **중학교용 진로교육 프로그램**. 부산: **반도 인쇄사**
- 부산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1994). **중학교 진로교육지도사자료**. 부산: **서면문화사**
- 박아청(1984). **아이덴티티의 탐색**. 서울: **정문사**
- 박영란(2002). **자기성장 집단상담이 중학교 부적응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준철(1985). **집단상담이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국민 대학교 교육대학원
- 변정순(1990). **진로의식 성숙을 위한 진로탐색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보현(1997). **중·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의식성숙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향숙(2004). 대학생의 자기 효능감과 진로 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 **학생생활연구**(용인대), 12, 61-79.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오미경(2006). 진로탐색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미경(2002). 진로집단 상담이 중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명숙(1989).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대학원
- 이기학· 이학주(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수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2(1), 127-1236.
- 이광자(2004). 부모 지지와 고등학생 진로발달과의 관계 연구: 일반계, 산업정보계, 실업계의 비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 순(2008).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미(2002). 대학생의 진로발달유형과 자기효능감, 진로장애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은경(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은경(2000).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창(1994). 진로교육 발전방안 탐색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한국진로교육학회**
- 이현림(1996). 진로상담의 필요성과 그 방향. 1, 1-14, **한국진로상담학회지**
- 이현림(2007). 진로상담. 경기: 양서원
- 이현림(2000). 진로상담의 이해.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 이현림· 천미숙(2004). 고등학생의 의사결정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식성숙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회지**.

- 이현림(2004). 청소년의 진로 의식 성숙에 의한 진로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인문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6(1), 668-357
- 장기명(2003).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효과 및 과정 분석,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미예·이현림(2007). 대학생의 진로장애 지각과 자아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의식 성숙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회지
- 정진성.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이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및 진로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희영(2007).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아미(2001). 예비 청소년 지도자의 전공 관련 직업 체험이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 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2(1), 29-46.
- 직업카드150(2012). 심리검사 전문 출판 마인드프레스
- 한국교육개발원(1992). 진로성숙도검사 표준화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홍 설(2006).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진로성숙, 진로 의사결정 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현숙(2003). 중학생을 위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진로결정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Erickson, E. H(1963).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Hakett, G. & Betz N E(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 of Counseling Psychology, 28, 399-410.
- Solberg, V.C., Good, G. E, Fischer, A.R, Brown, S.D., & nord, D(1995). *"Careew decision-making and career search activities": Relatove effects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human*

- agen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4), 448-455.
- Super, D. E.(1951). "*Vocational adjustment: Implementing a Self-concept*".
Occupations, 30, 88-92.
- Taylor, K. M. & Betz, N. E.(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Baildy, L. J. & stad, R(1973). Career education: *New approaches to human development*. Bloomington, IN: McNioght,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s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tz N E. & Haclett, G(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of Counseling Psychology, 28, 399-410.
- Blustein, D. L., Devenis, L. E., & Kidney, B(1989). A. Relationship between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2), 196-202.
- Brown. D(1986). Career Counseling: Before, after of instead of personal Counseling?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3, 197-201.
- Chapman, E. N(1976). Career search: *A personal pursuit*. Chicago, L|IL: Science Research Associates.
- Corey, G. & Corey, M. S(1977). Groups: *Process and practice*. Mpnterey, CA: Brooks/Cole
- Erickson, E. H(1963).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in
- Gazda, G. M(1989). Group Counseling: A developmental approach (4thed.) Boston, MA:Allyn & Bacon
- Gelatt, H. B(1962). Decision making : *A conceptual frame of reference for*

-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9, 240-245
- George, R. L. & Dustin, D(1988). *Group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 Ginzberg, E(1951). *Occupation and choice. New York: Cloumbia University Press*
- Ginzberg, E(1952).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Occupations*, 30, 491-494.
- Gribbons, Q. D. & Lohnesm P. R(1966). *A five-year styudy of student deucat deucational aspiration. Vocational Guidance Quartetly*, 14, 66-69
- Hakett, G. & Betz N E(1981). *A self 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velopment of q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avighurst, R, J(1935). *Human development and education. New York: Longmans*
- Hoppock, R(1935). *Jop satisfaction. New York, Haarper & Row*
- Jackson, I. Yalom(1969). *A famoly therapy: A view. Famoly Process*, 8, 280-318.
- Katz, M. R(1963). *A model of guidance for career decision-makong.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15(1), 2-10.
- Mahler, C. A(196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51-558.
- Marland. S. P. Jr(1972). *Career eucation now.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0(3), 188-192.
- Miller, D. C. & Form, W. H(1951). *Industrial sociology. New York: Harper*
- Parsons, F(1909). *Choosing a vocation. Boston, MA:Houghton Mifflin*
- Rogers, C. R(1970). *Encounter groups. New York: Harper & Row*
- Rubinton, N(1980). *Instruction in career decision-making and decision-making styles. Journal of Counseling Personality*, 31,

497-502.

- Sherry, P. & Staley, K(1984). *Career exploration groups: An outcome study*.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5, 155-159.
- Smith, G, E(1981). The effectiveness of a career guidance class: An
organizational comparis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7, 581-588.
- Super, D. E. & Overstreet. O(1960). The career maturity of ninth grade boys.
New York: *Teacher College Bureau of Publications*
- Super, D. E(1957). *The psychology of career*. New York: Harper & Row
- Super, D. E(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pp. 197-261). San Francisco: Jossey Bass
- Tiedeman. D. V. & O'Hara, R. P.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Tolbert, E. L(1963).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1980.
- Tuckman, B. W(1974). *An age-graded model for career development*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2), 193-212.
- Zunker, V. G(1994).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
(4th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Abstract>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by utilizing the professional card special effects on regional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middle school students who live in (Jeju)

Young Sik Yoon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ounseling Psychology Major

Professor Choi Bo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earn about the effects of the sub-factors of the important developmental tasks of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identity to be formed for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first-year junior high school in adolescence as seen applied in schools there is.

To this was set to the following hypothesis.

Hypothesis

1.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will affect the ego identity.

Hypothesis

2.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will affect the career decision-efficacy

J, which is located in J cit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verify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is above the 7th grade in one class were selected for 15 of 38 patients 19 people in charge of the program in groups career experimental group, the researchers present rather than the half 19 hits

15 people like this in charge of the other teachers were selected as a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pre-test,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follow-up inspection was carried out, the control group pre-test, post-test was carried out.

Dictionary of ego identity, measuring tools in the post-test was used in this study is the "ego identity check" of bakahcheong (2003) reconfigured for research purposes. This scale consists of a total of 50 items, Likert 5-point scale, higher scores as high indicates that the ego identity. In the five sub-regions of the initiative consists of a total of 50 questions by each of the 10 issues and reliability coefficient of this study (Cronbach's α) is 0.93.

Dictionary of career decision-efficacy, measuring tools in the post-test Tayloy and Betz (1983) joahmi developed a shortened form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SF) and (2001) are the researchers that the adapted research the fit was used to reorganize.

Course determine efficacy scale job information, target selection, and is composed of four sub-areas in the future planning, problem solving. This scale consists of a 5-point scale, the higher the score will be higher career decision-efficacy is.

The experimental group since March 5, 2015 to April 03, a total of 10 sessions of 45 minutes a week after twice conducted the program.

The program used in this study utilized information sources Busan Education (School Counseling Institute Korea, 2001),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to refer to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s for teachers' in each session, for a step-by-step goals.

Data analysis confirmed a crazy effect o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respectively, of pre and post test counseling and career exploration group conducted a black T- obtain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from the self-efficacy improved identity and career decisions. For the data processing program SPSS 18.0 was used.

obtained through the process as described above is as follows.

First,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compared to the control house just ego identity is not significantly increased participation

Second,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compared with career decision-efficacy i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control group that does not participate

This study counseling in groups career exploration program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is a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identity.

부 록 목 차

부록1.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69
부록2. 직업카드150	82
부록3. 자아정체감 검사지	97
부록4. 진로결정효능감 검사지	101

부 록 1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

1회기 : 진로를 찾아 출발!

주제	집단상담의 시작하기	운영방법	학급을 3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모둠별로 진행한다.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의 목적과 집단운영 방법을 이해한다. ·자기소개를 통하여 서로의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한다. 			
과정	활동내용	시간 (분)	자료 및 준비물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한다. ·활동 목표를 제시한다. ·간단한 신체 활동을 통해 분위기를 고조한다. 	5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약속 ·‘나의 약속’을 배부하고 마지막 항목을 작성하게 한다. ·‘나의 약속’을 함께 다짐한다. 	10	35	학생활동자료 1-1 학생활동자료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소개서 ·‘나의 소개서’를 배부하고 작성하게 한다. ·‘나의 직업적 별칭’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명찰에 적는다. ·모둠 원끼리 ‘나의 소개서’를 소개하게 한다. ·각 모둠에서 한 명만 ‘나의 직업적 별칭’을 전체 집단 앞에서 발표한다. 	25		학생활동자료 1-3 색연필 명찰 필기구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시간의 느낌을 전체적으로 나눈다. ·활동 내용을 정리한다. ·차시 예고를 한다. 	5		
차시예고	2회기 : 내가 본 나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안하고 진지한 분위기를 유도하여 학생들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 하도록 유도한다. ·‘나의 직업적 별칭’을 그릴 때에는 직업의 특징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활동 중 알게 된 친구의 사적인 비밀은 서로 꼭 지켜주도록 당부한다. 			

2회기 : 내가 본 나

주제	진로의 개념 이해	운영방법	학급을 3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모둠별로 진행한다.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생 전체의 발달과정으로서의 진로의 개념을 이해한다. ·자신의 전 인생 속에서의 현재 모습을 확인한다. 			
과정	활동내용	시간 (분)	자료 및 준비물	
도입	·지금까지의 살아온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낭독한다.	5	교사활동자료 2-1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를 이루고 있는 것들 ·‘진로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배부하고 작성한다. ·과거-현재-미래의 자기 모습을 보면서 모둠원끼리 이야기 한다.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활동자료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의 나의 모습 ·‘미래의나의 모습;을 배부하고 작성하게 한다. ·모둠 원끼리 ‘미래의 나의 모습;을 소개한다 	25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활동자료 2-1 색연필 필기구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시간의 느낌을 나눈다. ·차시 예고를 한다. 	5		
차시예고	3회기 : 나의 꿈, 나의 직업			
유의점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가 되도록 유의한다.			

제3회기 : 나의 꿈, 나의 직업

주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의 발견	운영방법	학급을 3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모둠별로 진행한다.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질의 발견에 대한 중요성을 안다 ·나의 적성을 알고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다. 			
과정	활동내용	시간 (분)	자료 및 준비물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목표를 제시한다.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신이 잘 하는 일이나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5	교사활동자료 3-1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흥미와 적성 ·‘나의 흥미와 적성’을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다. ·모둠 원끼리 서로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각 모둠에서 ‘나의 흥미와 적성’을 한 명 정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20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활동자료 3-1 학생활동자료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잘 하는 일 ·‘내가 잘 하는 일’을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다. ·완성된 것을 교실 게시판에 붙이도록 한다.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연필 필기구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시간의 느낌을 전체적으로 나눈다. ·활동 내용을 정리한다. ·차시 예고를 한다. 	5		
차시예고	4회기 : 직업세계의 탐색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흥미와 지금 막연히 바라는 직업이 서로 관련이 있는가를 확인해보도록 한다. ·학생들이 자기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다. 			

제4회기 : 직업세계의 탐색

주제	자신의 특성과 직업 특성의 결합	운영방법	대상자를 3개의 모듈로 나누어 모듈별로 진행한다.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 			
과정	활동내용	시간 (분)	자료 및 준비물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목표를 제시한다. ·직업카드를 탐색해 보도록 한다. 	5	직업카드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 ·직업카드 분류를 통하여 나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을 찾아보게 한다. ·각 모듈에서 한 명만 발표를 하게 한다. 	15	35	직업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와 직업 ·선호유형 찾기표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직업카드 분류표를 작성하게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직업이 어울리는지 각 모듈에서 한 명만 발표를 하게 한다. 	20		학생활동자료 4-1 학생활동자료 4-2 학생활동자료 4-3 필기구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시간의 느낌을 전체적으로 나눈다. ·활동 내용을 정리한다. ·차시 예고를 한다. 	5		
차시예고	5회기 : 나의 가치관 알아보기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흥미와 적성과 직업을 연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활동이므로 담임 교사가 각 조를 순회하면서 도움을 주도록 한다. 			

제5회기 : 나의 가치관 알아보기

주제	진로가치관 탐색	운영방법	학급을 3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모둠별로 진행한다.	
활동목표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개인의 가치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한다. ·자신이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탐색한다.			
과정	활동내용	시간 (분)	자료 및 준비물	
도입	·위인의 사례를 들어 가치관에 따른 인생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한다.	5	교사활동자료 5-1	
전개	<p>●소중한 보물</p> <p>·‘소중한 보물’을 배부하여 작성한다.</p> <p>·각자가 여기는 소중한 가치들을 이야기로 하고 집단원간의 차이점을 찾아본다.</p>	10	35	<p>학생활동자료 5-1</p> <p>학생활동자료 5-2</p>
	<p>●가치관 경매</p> <p>·모둠마다 가치관의 순위를 매기고, 집단리더가 경매인이 되어 가치관을 경매한다.</p> <p>·가치관을 경매하면서 뿌듯한 점, 아쉬운 점, 느낀 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p>	25		색연필 필기구
정리	·각 모둠 별로 1명씩 이번 시간의 느낌을 발표한다. ·차시 예고를 한다.	5		
차시예고	6회기 : 교실에서 만나는 직업			
유의점	·각 모둠 대표에게 경매 진행 요령을 집단 활동 시작 전에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다. ·과제물 제시 : http://www.work.go.kr 에 접속하여 >직업정보>직업찾기> 지식과 적합한 직업에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 찾아오기			

제6회기 : 교실에서 만나는 직업

주제	지식과 직업의 만남	운영방법	학급을 3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모둠별로 진행한다.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직업의 종류를 안다. ·좋아하는 교과를 꾸준히 공부하는 태도를 기른다. 			
과정	활동내용	시간 (분)	자료 및 준비물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목표를 제시한다. ·‘교과와 직업’에 대하여 설명한다. ·좋아하는 교과목이 같은 사람끼리 모둠을 만들게 한다. 	5	교사활동자료 6-1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좋아하는 교과와 직업 ·‘좋아하는 교과와 직업’을 보고 교과와 관련된 직업을 짝을 짓게 한다. ·좋아하는 교과와 관련된 직업의 종류를 모둠끼리 서로 의논하여 찾게 한다. 	2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활동자료 6-1 학생활동자료 6-2 학생활동자료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와 관련된 직업의 종류 ·‘교과와 관련된 직업의 종류’에서 교과와 관련된 직업의 종류를 알아보게 한다. ·미래에 자신이 꼭 되고 싶은 직업의 종류를 찾아 그 이유를 적게 한다. 	10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을 마치며’에 이번 회기를 통해 알게 된 사실, 느낌, 생각을 기록하고 모둠끼리 발표하게 한다. ·학습내용을 정리한다. ·차시 예고를 한다. 	10	학생활동자료 6-4	
차시 예고	7회기 : 우와! 이렇게 많은 직업이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을 나눌 때 같은 교과를 좋아하는 학생이 많이 있으면 두 모둠으로 나누고, 한 교과에 인원이 너무 적으면 교과목을 통합하여 한 모둠에 6명 내외로 조정한다. (예)도덕과 사회, 예체능 등 ·차시에 컴퓨터실 이용이 힘들 경우에는 http://www.work.go.kr에 접속하여 >직업정보>직업찾기>분류별 검색에서 직업 이름 100개 이상 알아오기 과제를 제시. 			

제7회기 : 우와! 이렇게 많은 직업이

주제	직업에 대한 이해	운영방법	학급을 3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모둠별로 진행한다.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의 종류에 대해 알 수 있다. ·많은 직업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안다. 			
과정	활동내용	시간 (분)	자료 및 준비물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목표를 제시한다. ·‘어제와 오늘날의 직업’을 설명한다. 	5	교사활동자료 7-1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숨은 직업 이름 찾기 ·‘숨은 직업 이름 찾기’를 배부하여 찾게 한다. ·모둠 원들과 찾은 것을 확인하게 한다. 	5	35	학생활동자료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아는 직업 ·‘내가 아는 직업’을 작성하게 한다. ·각 모둠에서 한 명만 발표를 하게 한다. 	15		학생활동자료 7-2 학생활동자료 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모르는 직업 ·‘내가 모르는 직업’을 작성하게 한다. ·각 모둠별로 돌아가며 확인하게 한다. 	15		색연필 필기구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내용을 정리한다. ·진로와 관련된 유용한 web site를 소개한다. ·차시 예고를 한다. 	5	학생활동자료 7-4	
차시예고	8회기 : 나의 미래 설계하기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색해야 하므로 컴퓨터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은 좋아하는 TV드라마에 나오는 직업의 예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차시에 컴퓨터실 이용이 힘들 경우에는 http://www.work.go.kr에 접속하여>직업정보>직업찾기>조건별 검색에서 전망 조건을 75%로 검색하여 그 결과를 뽑아오는 과제를 제시함. 			

어제와 오늘날의 직업

과거에는 직업의 종류도 적고 대부분 비슷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수많은 종류의 직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생산의 분업화 및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화와 더불어 시작되어, 고도로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직업의 종류는 약 2~3만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직업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자신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남녀의 성차별로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일과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는 집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고 여자는 가정에서 살림살이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 사회는 남녀의 역할 구분을 떠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분야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또, 고도 기술 정보 사회는 반드시 남녀 모두에게 고도의 능력을 요청할 것이며, 능력 있는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여성의 고급 인력이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 직업의 옛날과 오늘날 비교 ★

(1) 없어진 직업

- 버스 안내양 -타이프라이터 -주산원

(2)하향 직업

- 성냥제조업 -건널목간수 -굴뚝청소원
- 서커스단 -해녀

(3) 새로운 직업

- | | | |
|-------------|---------------|-----------|
| -자외선차단전문경화원 | -환경교사 | -만화학교수 |
| -무인변전소관리원 | -도로유약용유원 | -뮤직비디오감독 |
| -칵테일조주사 | -조향사(향기를 만드는) | -스포츠마케터 |
| -특허관리사 | -스포츠마사지사 | -북디자이너 |
| -사이버기상캐스터 | -레크레이션치료사 | -발관리사 |
| -인명구조견조련사 | -맹인안내견조련사 | -컴퓨터게임뮤지션 |

(4) 유망직업

- | | | |
|-------------|-----------|-----------|
| -컴퓨터그래픽디자이너 | -컴퓨터관련교육자 | -정보관리자 |
| -정보기기관리자 | -정보검색사 | -정보시스템감시자 |
| -인터넷쇼핑몰운영자 | -전자상거래관리사 | -환경오염측정기사 |

제8회기 : 나의 미래 설계하기

주제	미래사회의 직업	운영방법	학급을 3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모둠별로 진행한다.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사회의 유망한 직업과 자격증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대되는 직업을 알 수 있다. 			
과정	활동내용	시간 (분)	자료 및 준비물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목표를 제시한다. ·미래사회의 유망한 직업의 종류와 자격증을 살펴보게 한다. ·미래에 내가 갖고 싶은 직업과 자격증을 써보게 한다. 	5	학생활동자료 8-1 필기구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사회의 직업 ·‘미래사회의 직업’을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다. ·각 모둠 원끼리 찾은 것을 서로 돌려가며 읽어보게 한다. ·각 모둠에서 한 명씩 발표하게 한다. 	10	30	학생활동자료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명세서 ·‘생활 명세서’를 배부한다. ·10년, 20년 후인 미래의 생활모습을 상상해보고 적게 한다. ·각 모둠에서 한 명씩만 발표를 하게 한다. 	20		학생활동자료 8-3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을 마치며’에 이번 회기를 통해 알게 된 사실, 느낌, 생각을 기록하게 한다. ·활동내용을 정리한다. ·차시 예고를 한다. 	10	학생활동자료 8-4	
차시예고	9회기 : 의사결정도 기술이다.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퓨터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인터넷 사이트(노동부 : http://www.work.go.kr)을 미리 열어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노동부/직업정보/직업탐색/직업명칭별 검색·자격명칭별 검색) 			

제9회기 : 의사결정도 기술이다!

주제	의사결정기술	운영방법	학급을 3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모둠별로 진행한다.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결정방법 5단계를 이해할 수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과정	활동내용	시간 (분)	자료 및 준비물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목표를 제시한다. ·‘의사결정의 예’를 배부하여 읽어보게 한다. 	5	학생활동자료 9-1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결정 방법 ·‘의사결정 방법’을 배부한다. ·의사결정 방법을 설명하고 <보기>에서 찾아 쓰게 한다. ·학생들이 의사결정방법 5단계를 잘 찾았는지 확인 한다. 	5	30	학생활동자료 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결정 연습 ·각 모둠에 ‘의사결정연습’을 배부하고 작성하여 연습하게 한다. ·각 모둠끼리 돌려가며 읽어보게 한다. 	15		학생활동자료 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의사결정 ·‘나의 의사결정’을 배부한다. ·어떤 상황에서 자기의 의사를 결정했던 예를 작성 하고 모둠별로 발표하게 한다. 	15		학생활동자료 9-4
				필기구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내용을 정리한다. ·차시 예고를 한다. 	5		
차시예고	10회기 : 함께 하는 행복한 내일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결정과 의사결정방법 5단계의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자신의 미래의 명함을 모둠 원수만큼 만들어 오게 한다. 이때 모둠장에게 실제의 명함을 몇 장 예시로 주는 것이 좋다. 			

제10회기 :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

주제	집단 상담의 마무리	운영방법	학급을 3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모둠별로 진행한다.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의 나의 명함을 서로 나누면서 진로의식을 높인다. ·모둠 원들끼리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자신감과 친밀감을 향상시킨다. 		
과정	활동내용	시간 (분)	자료 및 준비물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목표를 제시한다. ·역사 속의 존경할 만한 인물을 한 명 정도 소개한다. ·명상음악과 함께 주변이나 역사 속의 존경할 만한 인물을 떠올리게 한다.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음기 명상음악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의 나의 명함 ·과제로 제시한 자기의 명함을 모둠끼리 서로 나누며 서로 인사를 나누게 한다. ●돌아가면서 사랑의 조각보를 작성하며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나눈다.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활동자료 10-1 명함 필기구 색연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을 마치며’에 집단상담 전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사실, 느낌, 생각을 기록하게 한다. ·활동내용을 정리한다.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활동자료 10-2
차시예고	종 료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랑의 조각보 작성 시에 진지한 태도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나눌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다. 		

부 록 2

직업카드 150

◆ 직업카드150

1. 직업카드150 개요

최근에 진로와 직업교육을 위한 활용 자료로 직업카드(vocational card)를 연구하였다(최명운과 조유미(2002), 박선영(2003), 안창규(2008)). 최명운(2002)의 직업카드는 90개의 직업카드와 4개의 빈 카드로 이루어졌으며, 조유미(2002)의 직업카드는 63개의 직업카드와 4개의 빈 카드로 이루어져 있다. 박선영(2003)의 직업카드는 11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창규(2008)의 직업카드는 6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9년에 개발한 직업카드는 모두 72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업카드에는 대개 직업명과 그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직업카드를 사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방법으로 직업카드를 분류하게 하는데, 이러한 직업카드 분류활동(vocationalcard sorting)은 학생들의 직업흥미, 가치, 요구 등을 탐색하게 하고 많은 직업들과 그 정보들을 경험하게 하는 유용한 방법이자 도구이다.

또한 직업카드 분류활동은 학생들의 직업적 흥미와 적성, 가치 등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의 체계적 과정을 체험하도록 도움을 준다. 직업카드 분류활동 또한 진로탐색에 효과적이며, 직업탐색챌린지(2014), 커리어챌린지(2014)의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와 직업정보를 재미있게 접할 수도 있다.

직업카드150은 자신의 흥미와 부합되는 직업들을 탐색하고 다양한 직업 정보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홀랜드 유형으로 개발하였다. 학생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의 홀랜드 유형(Holland type)을 살펴보게 하고, 진로 및 직업관련 정보를 경험하기 위해 개발된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도구이다. 카드분류를 위해 사용된 직업들은 홀랜드의 유형론(1985)에 따라서 구분된 것이다.

2. 홀랜드의 직업적 성격 유형

홀랜드는 성격유형의 개인차를 개념화하여 RIASEC이라는 6각형모형을 제시하였

다. 홀랜드는 사람들은 6가지 기본 성격유형 중의 하나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사람이 주어진 유형과 비슷할수록 그 유형과 관계된 행동과 특성이 더 명백해지기 쉽다고 본다. 홀랜드의 6가지 유형은 ‘현실형(Realistic: R), 탐구형(Investigative: I), 예술형(Artistic: A), 사회형(Social: S), 진취형(Enterprising: E), 관습형(Conventional: C)’으로, 첫글자를 따서 RIASEC이라고 한다.

RIASEC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홀랜드의 직업적 성격 유형

1) 현실형(Realistic: R, 행동주의자, The Doers)

현실형의 사람들은 과거 혹은 미래보다는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스스로 기계적인 것을 좋아하고 운동을 잘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끈기가 있고, 생각과 행동이 성숙되어 있으며, 단순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 영역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은 사물들과 일하고, 도구들과 기계들을 사용하여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그들은 악착같은 면이 있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것에 만족한다. 이 영역에 아주 높은 흥미를 가진 작업자들은 건설 분야, 숙련된 무역업, 제품 생산과 자동화 기계 조작, 농업, 음식 서비스, 손님 접대, 천연자원 분야와 같은 직업 분야에서 전형적으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그들은 식물, 동물, 그리고 나무, 도구들 그리고 기계류와 같은 실제 세계 재료들을 다루는 것을 선호한다. 현실형의 사람들은 서류와 관련된 업무나 타인과 함께 일하는 일들은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현실형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전기제품들을 수리하고, 전기적 문제를 해결하고, 스포츠를 좋아하고, 정원에 나무를 심고, 설계도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구체적인 업무를 선호하고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들을 선호한다.

그들은 가구를 수리하고, 식물과 꽃을 가꾸고, 야외에서 손을 많이 사용하는 일에 취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체적으로 많이 움직이거나 건물을 세우거나 동물을

훈련시키고, 전기적 장비를 다루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직업들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 버스운전기사, 항공기정비사, 소방관, 악기수리원 및 조율사, 자동차정비사, 제과제빵사, 조리사, 비행기조종사, 전기기술자, 교도관, 도선사, 비파괴검사원, 철도 및 지하철 기관사, 측량사, 치과기공사, 토목공학기술자, 통신장비설치 및 수리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동물조련사, 프로운동선수, 인쇄기조작원, 택배원, 해양경찰관, 직업군인

2) 탐구형(Investigative: I, 사고자, The Thinkers)

탐구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분석적이며, 구체적인 것보다는 추상적인 것을 선호하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논리적인 지식을 사용하여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학문적이고, 지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강하고, 수학과 과학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언어와 수리력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영역에 흥미있는 사람들은 대개 아이디어와 자료를 가지고 일을 한다. 문제해결, 과학적 그리고 기술적인 일을 선호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고, 지적이며,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선호하는 업무는 추상적인 사고, 연구 그리고 분석들이다.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리더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머리 속으로 해결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일을 좋아한다. 일상생활 측면에서 보면 물리 과학분야, 행동과학분야, 응용 기술분야, 그리고 수학적, 기술공학적인 분야의 직업들이 이 유형에 속하게 된다.

이들은 평소 과학적이고, 분석적이며, 호기심이 강하고, 정교하며, 학문적이고, 내성적이며 지능적으로 자신감이 있고, 논리적이며 복합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그들은 수학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과학적 이론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이해하며, 복잡한 계산도 잘 해 낸다. 또한 공식을 잘 해석하고 현미경 혹은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 유형의 특징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꾸준히 탐구하고, 실험실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고 과학, 기술 잡지류나 책 읽는 것을 좋아하며, 도전정신이 뛰어나다. 이들은 보드게임과 십자말 문제풀이를 좋아하고 박물관 관람을 좋아하

고, 광석, 우표, 동전 등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으며, 천문학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직업들은 다음과 같다.

대학교수, 의사, 약사, 영양사, 의사, 임상심리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한의사, 경제학연구원, 식품학연구원, 경영컨설턴트, 마케팅 및 여론조사전문가, 화학연구원, 도시계획가, 컴퓨터프로그래머, 전자공학기술자, 조선공학기술자, 석유화학기술자,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지리정보시스템(GIS)전문가, 물리학연구원, 역사학연구원, 환경공학기술자, 조향사, 게임기획전문가, 제품환경컨설턴트, 소셜클레이션서비스기획자, 디지털음원마케터

3) 예술형(Artistic: A, 창조자, The Creators)

예술형의 사람들은 느낌, 정서와 상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직관적이고, 표현적이며, 독립적이고, 내성적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예술과 음악적인 능력(연기, 작문, 말하기)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미적인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영역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 아이디어, 그리고 사물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대체로 선호하는 편이며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일을 선호한다. 예술형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개방적이며 독창적인 성격을 소유한 것으로 기술된다. 그들은 융통성 있고 예상할 수 있는 작업 환경에 호의적이다. 예술형 분야에 점수가 아주 높은 사람들의 직업분야를 보면, 디자인, 응용미술, 건축, 부엌가구 디자인, 교육, 미디어, 패션 분야 등이다.

이들의 성격은 직관적이고, 혁신적이며, 정서적이며 독립적이다.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고 감각이 뛰어나고 충동적이며 용기 있는 편이다. 그들은 스케치, 그림그리기, 색칠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음악도구를 연주하는 능력과, 시나리오를 쓰고, 노래를 작곡하고, 연기를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춤을 잘 추며, 패션과 인테리어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다.

예술형의 사람들은 영화나, 예술 전시, 콘서트 등을 좋아하며, 소설을 읽고 시를 쓰는 것 또한 좋아한다. 사진작업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들은 드라마 대본을 쓰고, 표지 디자인을 하고, 바느질을 하고, 댄스 레슨을 받는 취미 생활을 즐긴다. 이들은 또한 여행하는 것,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 손으로 무엇을 만드는 것, 색칠하는 것, 장난감을 디자인 하는 것 등의 취미를 가지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직업들은 다음과 같다.

가수, 게임그래픽디자이너, 기자, 모델, 배우, 메이크업 아티스트, 아나운서, 애니메이터, 통역사/번역사, 미용사, 작곡가, 소설가, 안무가, 일러스트레이터(삽화가), 출판물편집자, 사진작가, 건축설계기술자, 제품디자이너, 영상편집기사, 조경기술자, 연예프로그램진행자, 방송작가, 연주가, 미술가, 인테리어디자이너, 메디컬일러스트레이터

4) 사회형(Social: S, 조력자, The Helpers)

사회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사교적인 성격으로 타인들의 도움에 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그리고 타인을 가르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회형의 사람들은 사교적인 활동과 사회문제 그리고 대인관계 활동에 가치를 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언어와 사교적인 능력을 사용한다.

사회형 영역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도움을 주는 일, 가르치는 일 그리고 치료와 관련된 일을 선호한다. 사회형 사람들은 이해심이 많고, 참을성이 있으며, 관대한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그들은 들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조언을 해주는 직업 분야에서 일을 한다. 사회형에서 점수가 아주 높게 나온 사람들이 일하는 직업 분야를 보면 교육, 건강, 오락, 서비스업, 종교적인 활동 등이다.

또한 그들은 타인의 학습을 도와주고 개인의 발달을 지원해 주며, 어떤 사물이나 기계류, 자료 보다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함께 이야기 하고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 주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친절하며, 정력적이고, 책임성이 강하고, 이해심이 넓고, 설득을 잘하고 협동적이며, 통찰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사람이나 동물을 훈련시키고, 집단토론을 주도하며, 활동을 계획하고 지휘하고, 타인들과 잘 협조한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며, 미팅을 한다든지 팀으로 경기를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이들은 소속된 집단에 자원봉사를 원하고, 편지 쓰기를 좋아하고, 동호회에 가입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아이들을 돌보고, 파티하는 것을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이 분야에 속하는 직업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사, 미술치료사, 놀이치료사, 여행가이드, 유치원교사, 응급구조사, 초등학교 교사, 중고등학교교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성직자, 방사선치료사, 치과위생사, 청소년상담사, 보육교사, 직업상담사, 장례지도사, 언어치료사, 보호관찰관, 원예치료사, 직업재활상담사, 청능사, 체형관리사, 인터넷계임중독치료전문가, 자살예방상담가

5) 진취형(Enterprising: E, 설득자, The Persuaders)

진취형의 사람들은 도전적이고, 지배력이 강하고, 타인을 설득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들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들에 관심이 많으며, 사업에 탁월한 능력이 있고 리더십이 강하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감이 강하고, 사교적이며, 리더십이 있고 말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영역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을 주도하거나 설득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감이 있고, 야망이 있으며 정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개 판매와 관련된 직업, 설정된 목표를 성취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를 좋아한다.

이 유형의 점수가 높게 나온 사람들은 사업분야, 마케팅, 경제, 보험 판매, 법률과 관련된 직업들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다. 또한 사업적 모험을 하기 위해 프로젝트

트를 수행하고, 이익을 위해서는 위험도 감수하는 업무를 선호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들은 자신감이 있으며, 사교적이고, 설득적이며, 충동적이고 자발적이며, 말을 많이 하고, 외향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있다. 자신의 일을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언변이 뛰어나고 활동성을 잘 조직화하고, 집단을 리드하면서 타인을 잘 설득시키는 능력이 있다. 제품을 많이 판매하여 상을 받고, 정치적인 홍보를 하거나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만의 방법과 사업계획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정치적인 토론을 자주하며, 사업과 관련된 잡지나 도서를 읽는 것이 취미이며, 주식과 관련된 시장의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중요한 회의나 워크숍에 참가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공동체의 조직을 리드해 나가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분야의 직업들은 다음과 같다.

웨딩플래너, 경호원, 광고 및 홍보전문가, 바리스타, 변호사, 판사, 검사, 안경사, 영화감독, 방송프로듀서, 스킨케어전문가, 항공기객실승무원, 관세사, 공인노무사, 수산양식업자, 소믈리에, 법무사, 변리사, 사이버수사요원, 텔레마케터, 선장 및 항해사, 큐레이터(학예사), 금융자산운용가, 물류관리전문가, 공인중개사, 도시농업활동가, 공정여행기획자, 소셜커머스품질관리자, 원산지관리사, 외교관

6) 관습형(Conventional: C, 조직자, The Organizers)

관습형의 사람들은 잘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들은 정확한 언어로 말하며 안전한 일을 좋아하고 계산을 정확히 해내는 업무들을 좋아한다. 그들은 스스로 순서적이고 안정적인 업무를 선호하며, 사무적이고 숫자를 다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강한 리더 밑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 유형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은 자료와 사물,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며, 기록하고 계산하는 업무를 선호한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조직적이고, 효율적이며 집중력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업무에 숫자, 기계 그리고 컴퓨터 등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그들은 정확성이 뛰어나고 효율적이고 의식적으로 일하며, 체계적으로 차례대로 일하며, 구조화된 업무를 좋아한다.

다. 이들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회계분야, 은행, 경제분석분야, 사무직, 컴퓨터 응용 분야 등에서 주로 근무한다.

관습형의 사람들은 짜여져 있고 거의 변하지 않는 업무를 좋아하며, 아이디어보다는 숫자 등의 자료와 함께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하며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일, 정교한 계산을 요구하는 일을 아주 좋아하는 편이다. 그들은 정확성이 뛰어나고, 효율적이고 의식적으로 일하며, 체계적으로 차례대로 일을 하며, 순종적이고 구조화된 업무를 좋아한다.

그들은 조직의 시스템 내에서 일을 잘 할 수 있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종류의 서류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정확한 기록을 중요하게 여기며, 계산기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들은 분명한 것을 좋아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며, 어떤 것을 조직화하고 수집하는 것을 좋아 한다.

기념품 같은 것을 모으는 취미가 있고, 워크숍이나 가족의 일정 등을 잘 챙기고, 컴퓨터 혹은 카드게임을 즐기며, 동호회나 가족들의 경조사 등을 파일로 잘 정리해 놓고, 세무관련법을 공부하는 것, 족보를 쓰고 관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직업들은 다음과 같다.

경리사무원, 공인회계사, 전문비서, 세무사, 우편물집배원, 웹기획자, 출판창구사무원, 출입국심사관, 항공권발권사무원, 사서, 게임딜러, 보험계리사, 의무기록사, 투자분석가, 손해사정사, 컴퓨터보안전문가, 전화번호안내원, 항공교통관제사, 통계학연구원, 컴퓨터속기사, 보석감정사, 임상병리사, 보험사무원, 회계사무원, 법률사무원

3. 직업카드150 개발과정

1) 직업 150개 선정

직업카드150의 직업명은 직업세계에 타당한 대표성을 가지는 직업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신중 유망 직업, 그리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의

흥미와 부합되는 직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카드가 많을수록 그리고 새로운 직업이 많을수록 분류에 대한 흥미와 진로 지도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보편 타당한 직업과 현대 사회와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직업들을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직업카드를 선정하기 위해 한국직업전망서, 외국의 O*Net, WorkNet 등을 참조하여 300개의 직업을 선택하였다. 이들의 직업들 중 직업세계의 대표성, 신중 유망 직업, 학생들의 직업 선호도 등을 참조하여 200개의 직업을 선별하였다. 200개의 직업카드를 다시 홀랜드 유형으로 분류하고, 직업교육 및 진로지도 교사 그리고 커리어코치와 협의하고 연구하여 최종 150개 직업들을 선정하였다.

2) 직업카드의 구성

직업카드150은 161개의 직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161개의 직업들은 홀랜드 유형(RIASEC)을 고려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현실형(R), 탐구형(I), 예술형(A), 사회형(S), 진취형(E), 관습형(C)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초기의 직업 수는 150가지였으나, 최근에 신규 직업을 추가하여 전체 직업 수는 161가지이다.

직업카드150의 앞면에는 홀랜드 유형, 유형별 일련번호가 표시되어 있다. 홀랜드 유형별로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였으며, 모두 6가지 색깔로 되어 있다. 현실형은 청색, 탐구형은 분홍색, 예술형은 보라색, 사회형은 초록색, 진취형은 빨간색, 관습형은 파랑색이다. 각 유형에는 행운 카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직업카드 게임 활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직업카드 뒷면에는 직업명, 직업설명(하는 일), 지식, 능력, 흥미, 성격, 전공(관련 학과), 자격(증)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유형별 디자인 색깔은 모두 다르다. 미래전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직업탐색과정에서 단순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된다. 직업카드의 규격은 가로 65mm, 세로 90mm이다.

3. 직업카드150 활용 방법

1) 직업카드 선택

직업카드150은 초등학생, 청소년 그리고 성인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만일 초

등학생들이 분류활동을 한다면 각 유형별로 1번에서 10번까지만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직업카드 분류활동을 한다면 각 유형별로 1번에서 20번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분류활동시간이나 집단의 크기에 따라 융통성 있게 카드 수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만일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각 유형별로 모두 사용하여 분류활동을 하면 효율적이다. 이것은 직업카드게임을 할 때에도 같은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각 유형별로 카드 수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대상자들을 홀랜드 유형으로 분류한 다음, 각 해당하는 유형의 직업카드를 활용하여 진로탐색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RIASEC 진로적성검사(마인드프레스, 2010)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2) 직업카드 분류 활동

직업카드150에는 ‘좋아하는 직업’, ‘결정할 수 없는 직업’, ‘싫어하는 직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풋말(범주)카드가 포함되어 있다. 직업카드 분류활동은 참여 학생의 인원수에 따라 크게 개인별, 소집단별, 학급별(중등학교의 경우)의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다.

직업카드 분류활동은 직업카드 분류, 분류 이유 찾기, 선호 유형 찾기, 결과요약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들 과정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는 단계는 아니며 진행자들이 사용 여건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하여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다.

(1) 도입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직업카드150을 나누어 주고, 직업카드의 구성내용과 카드분류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해 준다. 직업카드에 표시되어 있는 직업명과 정보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잠시 가진다.

(2) 직업카드 분류

직업카드150에 포함되어 있는 풋말(범주)카드(좋아하는 직업, 결정할 수 없는 직업, 싫어하는 직업 이라고 적힌 카드)를 테이블의 위쪽에 위치시키도록 한다. 분류 단계에서는 직업카드를 좋아하는 직업과 싫어하는 직업 그리고 결정할 수 없는 직업(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미결정) 직업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해 본다.

‘좋아하는 직업’으로 분류하는 직업들은 그 직업에 대해 평소 호감이 있거나, 그 직업에 종사하고 싶지는 않지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직업, 추구하고 싶은 직업, 향후 직업으로서 선택할 확률이 높은 직업들이다.

‘싫어하는 직업’으로 분류하는 직업은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업, 종사하고 싶지 않은 직업, 관심이 없는 직업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지시켜야 한다.

팟말(범주)카드 아래로 직업카드를 ‘좋아하는 직업’, ‘결정할 수 없는 직업’, ‘싫어하는 직업’으로 분류한다. 1차 분류가 끝나면, ‘결정할 수 없는 직업’으로 분류된 직업카드들의 정보들을 한 번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만일 다른 곳으로 분류 가능한 것이 있다면 옮긴다. 각 범주에 포함된 카드의 개수를 헤아려 활동지에 기록한다.

	좋아하는 직업	결정할 수 없는 직업	싫어하는 직업
카드 개수	20	125	15

(3) 분류 이유 찾기

이 단계는 특정 직업에 대해 막연히 좋다고 생각하던 것에서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료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직업 흥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해 보게 하는 핵심적인 과정이다.

‘좋아하는 직업’으로 분류된 직업카드들을 대상으로 분류한 이유를 생각하여 활동지에 정리한다. 예컨대, 판사, 치과의사-높은 보수, 미술치료사-봉사와 도움 등으로 기록한다. 최대 20개 정도 기록하도록 한다.

직업명	분류한 이유
1. 판사	높은 보수
2. 치과의사	높은 보수
3. 대학교수	명예, 봉사

(4) 위에서 기록한 이유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적어 보세요.

높은 보수와 명예

(5) 가장 좋아하는 직업 3개를 골라 아래 빈칸에 순서대로 적고 그 이유를 적어 본다.

순위	좋아하는 직업	선택한 이유
1	판사	높은 보수
2	치과의사	높은 보수
3	대학 교수	명예, 봉사

• ‘싫어하는 직업’으로 분류된 직업들을 살펴 보고, 싫어하는 이유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적어본다.

기계적인 일, 반복성, 낮은 보수

• ‘결정할 수 없는 직업’으로 분류된 직업들 중, 나중에 좀 더 탐색해 보고 싶은 직업이 있다면 아래에 적어본다.

자살예방상담가, 소셜커머스품질관리사

(6) 선호유형 찾기 단계

‘좋아하는 직업’으로 분류된 카드를 홀랜드 유형으로 각각 정리한다. 다음의 도표에 유형별 카드 개수를 헤아려 기록하고 계산하여 합계를 산출한다.

<표 1>홀랜드 선호유형 찾기

홀랜드 유형	좋아하는 직업			합계	
	카드 개수	점수			
R	4	X	3	=	12
I	2	X	3	=	6
A	8	X	3	=	24
S	1	X	3	=	3
E	3	X	3	=	9
C	2	X	3	=	6
홀랜드 코드 : <u> A </u> , <u> R </u>					

카드 갯수에 점수를 곱한다. 예를 들어서 R유형의 ‘좋아하는 직업’의 카드 개수가 6개 이면, $6 \times 3 = 18$ 이 된다.

위의 표에서 각 유형별로 합계를 모두 산출한 후에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두 가지 유형을 찾고 그 유형을 도표의 홀랜드 코드란에 기록한다. 이 단계에서 직업 카드 분류 활동에 참가한 대상자의 홀랜드 코드를 알 수 있으며, 홀랜드의 6가지 유형 중에 가장 선호하는 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각 유형별 합계가 R = 12, I = 6, A = 24, S = 3, E = 9, C = 6이라면, 이 참가자는 A유형의 점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R유형의 점수가 높다. 이 참가자의 홀랜드 코드는 AR이다.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같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때는 두 영역 모두에 흥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홀랜드 코드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유형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코드로 사용될 수도 있다.

(7) 결과요약단계

이 단계는 직업카드 분류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직업들과 그 직업들에 대한 정보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요약하도록 돕는 단계이다. 결과요약단계는 분류활동을 하면서 흩어져 있는 직업지식들을 머릿속에 잘 정리하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진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또한 진로선택에 요구되는 진로정보수집능력,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에 구두 혹은 필기로 답하게 하여 직업카드 분류활동을 요약하고 마무리 한다.

·나의 홀랜드 유형 코드는 _____

·내가 좋아하는 직업들은 _____

·내가 싫어하는 직업들은 _____

·새롭게 알게 된 직업들은 _____

·직업카드 분류활동을 통해 나는 _____

부 록 3

자아정체감 검사

자아정체감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칸에 ○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 않다	매우 그렇 지 않다
1	나는 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2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마나 한 존재이다					
3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4	시작할 때는 열성을 보이나 오래가지 못한다					
5	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턱대고 따르는 편이다					
6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7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8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9	나는 꾸준히 한가지 일에 몰두하디 못한다					
10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잘 한다					
11	나의 일은 내 스스로 처리한다					
12	우리 집안에서 나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13	나는 장차 무역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14	나는 계획한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한다.					
15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16	나는 내 판단에 자신이 없다					
17	나는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번호	문항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 않다	매우 그렇 지 않다
18	나는 어른이 되어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알고 있다					
19	나는 빈둥거리며 많은 시간을 허송하는 편이다					
20	나는 혼자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21	아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					
22	이 세상일은 결국 허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3	나의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있다					
24	나는 일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25	나는 다른 사람을 이끌기보다는 따라가는 편이다					
26	나는 내 모습 이대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7	나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것 같지 않다					
28	나는 장래 무슨 직업을 택할 것인가 결정할 수가 없다					
29	나는 어렵거나 힘든 일은 피하는 편이다					
30	나는 결단력이 부족하다					
31	나는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32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33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34	나는 남달리 잘하는 일이 별로 없다					
35	스스로 생각하기 보다는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린다.					
36	나는 일단 시작한 일은 기어코 끝내 고야 만다					

번호	문항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 않다	매우 그렇 지 않다
37	나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적이 없다					
38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다					
39	하고 싶은 일 중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40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언동에 영향받기 쉽다					
41	나는 애가 매우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2	나는 근본적으로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43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44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해도 의욕이 없고 별별 지나간다					
45	나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					
46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다					
47	숨겨진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 두렵다					
48	나는 내 장래 일에 대해 미리 계획하고 싶지 않다					
49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되려고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50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부 록 4

진로결정효능감 검사

진로결정효능감 검사

번호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다					
2	선택 가능한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3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4	선택한 고등학교나 학과에 관련해 어려움이 있을 경우, 취해야 할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5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 목록들에서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6	선택한 학과를 이수하는데 요구되는 교과과정들을 알 수 있다					
7	힘든 상황에서도 학과나 진로목표를 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8	향후 10년 동안의 직업에 대한 고용 경향을 알 수 있다					
9	내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10	이력서를 잘 쓸 수 있다					
11	처음 선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고등학교나 학과를 바꿀 수 있다					
12	고려하고 있는 직업의 평균 수입과 연봉을 알 수 있다					
13	진로결정 후, 잘 한 것인지에 대해 걱정 하지 않는다					
14	관심 있는 고등학교나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15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16	입학면접과 관련되는 저차들을 잘 다루어 나갈 수 있다					
17	처음의 선택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고등학교나 학과선택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